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80호 【루계 제23397호】 주체100(2011)년 3월 21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대고조전투장들에서 정치사상공세의 포성을 더 높이 울리자

오늘 우리 조국땅에서는 뜻깊은 ２０１２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우리는 격동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벌려 온 나라에 전례없는 창조와 비약의 기상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합니다. 사상만 발동되면 막대한 예비가 쏟아져나오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상사업을 앞세우고 그 위력으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우리 당은 올해에 《승리의 길》노래로 총공격전을 선포하였다. 수령님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 기어이 장군님따라 승리떨치리라는 노래는 천만군민의 사상정신력을 천백배로 높여주고있다. 지금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고조전투장들에서는 전격적이며 집중적인 사상공세가 벌어지고있다. 경공업, 농업부문에 선전선동의 화력이 집중되고 순천, 덕천, 개천을 비롯한 각지 탄광들과 주요발전소들에서 경제선동이 박력있게 진행되고있다. 사상전의 위력으로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오늘 인민생활대고조에 떨쳐나선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기세는 대단하다. 선군청년총동원대회를 계기로 《조선청년행진곡》이 온 나라에 울려퍼지고있으며 청년들이 대고조진군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희천과 운산에서 CNC화의 새로운 비약이 이룩되고 흥남가스화대상공사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조선의 속도가 창조된것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비상히 앙양된 대중의 사상정신력의 결실이다.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산울림이 온 강산을 진감하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대고조승리의 열쇠가 천만군민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사상사업에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사상론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대중의 혁명적열정과 창조적적극성을 최대로 폭발시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불굴의 강행군정신으로 투쟁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고조령도실록은 불철주야로 이어지는 애국헌신의 강행군실록이다. 올해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강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지휘하고계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정신으로 심장을 끓이며 장군님의 강행군보폭을 따르는 사람이 대고조시대의 참된 혁명전사이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으로 일관시켜 그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대고조의 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걸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고조령도실록을 대중속에 깊이 체득시켜 누구나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시간, 강행군속도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자기 초소, 자기 일터에서 장군님께 최대의 기쁨과 만족을 드릴수 있는 대고조성과들을 이룩하는데 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하며 생산과 과학기술을 일체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당조직들은 우리 당의 정책적의도를 대중이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제시된 전투적과업들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사상사업을 진행해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대중속에 깊이 심어주며 그들이 올해에 점령해야 할 경제발전목표와 과학기술발전목표를 잘 알고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사상전의 모든 형식과 방법,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으로 실효성있게 선전선동공세를 들이대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양, 강연, 선동을 실속있게 활발히 진행하여야 한다.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에서는 천만대중의 심장에 무한대의 힘과 열정을 안겨주는 시대의 명작, 걸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기동예술선동대활동과 군중예술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 어디서나 약동하는 기백과 랑만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중요부문과 기념비적창조물건설장들에 강력한 경제선동대를 파견하여 맡겨진 경제과업수행과 완공기일을 앞당기도록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인민군군인들과 군인가족들처럼,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２．８비날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처럼 노래를 하나 부르고 선동극을 하나 해도 당의 사상과 의도가 뚜렷하게, 시대의 지향과 숨결이 맥박치게 하며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박력있고 호소성이 강하게 하여야 한다. 선전선동사업을 사람들의 준비정도와 조건과 환경, 분위기에 맞게 격식과 틀이 없이 기동적으로 참신하게 하여야 한다. 전투소보와 속보, 경쟁도표, 전투기록장, 소묘작품창작 등 모든 형식과 수단을 동원하여 대고조전투장들이 기적과 혁신의 기상으로 들끓게 해야 한다.

일군들이 들끓는 전투현장에 들어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일군들은 총진군대오의 기수이며 일군들의 활동무대는 대고조전투현장이다.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 당정책을 제때에 알기 쉽게 해설해주며 직접 마이크와 북채를 잡고 선동도 하고 노래도 불러야 한다. 기대옆과 포전, 탄광, 광산의 지하막장에서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이신작칙이 그대로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일군이건 행정경제일군이건 근로단체일군이건 사상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일대 사상공세를 벌려야 한다.

특히 당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불타는 고지에서 전투원들을 결전의 길로 불러일으키던 전화의 선동원들처럼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사상전을 화선식으로, 진공적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 학습강사, 강연강사, 선동원, ５호담당선전원들은 자기가 속한 대오의 모든 근로자들이 선군천리마를 타고 폭풍쳐 내달리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이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벌려나갈 때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될것이다.

창조와 건설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아가는 조선인민

국제사회계가 격찬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구상이 우리 나라에서 현실로 꽃펴나고있는데 대하여 국제사회계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쿠웨이트신문 《쿠웨이트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시면서 읊으신 시에서 볼수 있듯이 조선을 세계만방에 빛내이는것이 그이의 리상이다.

그이께서는 선군령도로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그이의 령도로 최근년간 조선에서는 새로운 강철생산체계가 확립되고 마그네사크링카공업의 주체화와 주요공장, 기업소들의 CNC화가 실현되였으며 주체비날론폭포가 쏟아지고있다.

먄마련맹련대성발전당 기관지 《그리너리 골든 랜드》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후손만대 복락을 누려갈 만년대계의 옥토를 얻어내기 위한 대계도간석지건설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은 새로운 간석지건설공법들을 창안도입하여 바다에 널려있던 섬들을 련결시킴으로써 나라의 지도가 달라지게 하였다.

대계도간석지에는 사회주의대농장과 소금밭, 양어장들이 새로 생겨나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나미비아신문 《뉴 이어러》는 이렇게 평하였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이 구호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 식대로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려는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반영하고있다.

지금 세계는 목표달성의 근본열쇠를 틀어쥔 조선인민이 자기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창조와 건설의 영웅서사시를 보고있다.

에짚트아랍예술문화공보협회 총서기는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제기되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１００％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고 자기 식의 독특한 열핵반응장치도 설계제작하여 마침내 성공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새 에네르기개발을 위한 돌파구가 열리고 조선의 최첨단과학기술발전에서는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에서는 강성번영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조선에서 이룩된 성과를 통하여 **김일성**주석의 유훈대로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모시고있는 조선인민은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끊임없이 가하며 억세게 전진해나갈것이다.

뽀르뚜갈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쉬임없이 걸으신다, 주석의 평생소원, **김정일**령도자의 리상이 조선에서 현실로 펼쳐지고있다고 격찬하였다.

메히꼬주체사상연구소는 블레찐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경제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이끄신다.

조선에서 일어나고있는 사변들은 바로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키고 조직동원하는 그이의 현지지도가 얼마나 큰 위력을 나타내는가 하는것을 실증해주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여 강성대국의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평양에서 제２７차 ４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진행된다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제２７차 ４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다.

４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진보적인류가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끝없이 흠모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렬한 칭송이 뜨겁게 분출되는 국제적인 대예술회합으로 년대와 세기를 이어 빛나고있다.

이번 축전은 다음해에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게 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１００돐을 앞두고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집중시키고있다.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진행되는 축전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국내콩클수상자들, 명배우들로 구성된 수많은 예술단, 무용단, 교예단 그리고 해외동포예술단들과 우리 나라 예술인들이 참가하게 된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안고 참가자들은 다채롭고 특색있는 예술작품들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태양절을 뜻깊게 기념하고 축전의 거대한 생활력과 발전면모를 과시하는데 기여할것이다.

축전은 세계인민들과 예술인들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강화하고 문화적교류와 협조를 도모하는 훌륭한 계기로 된다.

제２７차 ４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꽃피우기 위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대고조진군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할것이다.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투쟁정신으로 끊임없는 비약을

주공전선에 총공격전의 불길을 지펴올려

평양시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평양시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나라의 경공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여야 할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경공업부문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는 일대 선풍이 온 나라에 휘몰아치게 할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있다.

시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동사설의 과업을 받들고 내세운 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힘차게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전투장들마다에서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게 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시안의 경공업공장당조직들에서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일터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고있다. 특히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방직공장, 선교편직공장, 평양양말공장 당조직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과 함께 생산공정의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평양화장품공장 당조직에서는 현대화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대중을 적극 발동하고있다. 그리하여 인민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화장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게 하고있다.

평양기초식품공장 당조직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하는것과 함께 기름정제공정과 맛내기생산공정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을 새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시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강력한 기술력량을 꾸리고 새로운 공정들의 현대화공사를 성과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있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콩우유가루직장의 골조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내부공사와 설비조립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８월풀가공공장과 애국남새가공공장 당조직들에서는 종업원들속에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해설선전하는것과 함께 일군들이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하고있다.

애국남새가공공장 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규모가 큰 김치생산공정과 장절임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일떠세운데 만족하지 않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이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하기 위해 일터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이게 하고있다.

평양곡산공장 당조직에서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전투에서 모두가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생산자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리하여 지금 공장에서는 추진중에 있는 앞공정현대화공사를 하루빨리 다그쳐 끝내기 위한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다.

시안의 지방공업공장 당조직들에서도 자체의 원료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여러가지 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모두가 혁신의 창조자가 되도록 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시안의 각급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특파기자 최수복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증산투쟁을 과감하게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기업소참모부에서는 석탄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해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는것과 함께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탄광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새 탄발들을 마련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그리하여 고건원탄광의 수직갱복구굴진이 높은 속도로 추진되고있으며 여러 탄광들에서 새 구역조업을 위한 굴진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룡북청년탄광의 탄부들이 석탄증산투쟁의 앞장에서 날마다 실적을 올리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이 막장에서 정황에 따르는 생산조직과 기술적지도를 잘해나가고있으며 실천적모범으로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탄광에서는 굴진공대렬을 튼튼히 꾸린데 기초하여 사회주의경쟁을 적극 벌려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있다. 덕촌갱의 굴진공들은 암질상태에 맞게 천공배치를 잘하고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는 한편 착암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굴진에서 매일 계획을 １．５배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６갱과 ７갱, 룡서갱에서는 막장설비들의 관리를 잘하고 만가동을 보장하여 석탄채취률을 부쩍 높이고있다.

고건원탄광에서는 탄발을 넉넉히 마련한데 기초하여 발파효률을 높여 많은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석탄생산량을 부쩍 늘이고있다. 특히 ６월 ２０일갱의 탄부들은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들은 채탄면에 맞는 앞선 탄캐기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으며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오봉탄광을 비롯한 여러 탄광들에서도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탄광들에서 이룩된 성과를 널리 소개선전하는것과 함께 후방사업을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특파기자 리성호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질좋은 천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９월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천성—성산천 자연배수갱공사 적극 추진

평안남도안의 청년돌격대원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천성—성산천 자연배수갱공사에 떨쳐나선 평안남도안의 청년돌격대원들이 전투장마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며 빛나는 위훈을 새겨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은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강성대국건설의 돌격대입니다.》

천성—성산천 자연배수갱공사는 천성청년탄광, 령대탄광, 신창청년탄광들에서 갱의 침수를 막고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공사이다. 공사가 완공되면 갱막장들에서 리용하던 전동기, 뽐프를 비롯한 수많은 설비들이 필요없게 되고 로력과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석탄생산을 안전하게 내밀수 있게 된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청년돌격대원들을 발동하여 나라의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이 공사를 빠른 기간에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력량을 집중하여 배수갱굴진을 힘있게 진척시키고있다.

려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과 공사에 동원된 청년돌격대원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천연암반을 뚫고나가면서 청춘의 자서전에 빛나는 위훈을 새겨가고있다.

개천, 덕천, 북창, 득장, 순천지구의 탄광들에서 달려온 청년돌격대원들은 갱막장마다에서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배수갱굴진을 다그치고있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대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굴진속도를 높여나가고있다. 이들은 암질에 따르는 여러가지 합리적인 천공방법을 받아들이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맡은 공사의 많은 몫을 해제끼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대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수시로 물이 차오르는 막장에서 물푸기를 위한 전투를 벌리면서 굴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대대에서는 막장조건에 맞게 대담하게 압축기를 갱안으로 끌어들여 굴진속도를 높여나갔으며 버럭운반시간을 훨씬 단축하여 하루계획을 １．３배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와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대대의 청년돌격대원들도 자연과의 투쟁에서 걸음걸음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청춘의 열정과 기백으로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결사전을 벌려나가고있다.

배수갱확장공사를 맡은 덕천시, 은산군대대들에서는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일을 해제끼면서 굴진과 갱영구화공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이밖에도 맹산군, 성천군, 북창군, 순천화학련합기업소대대들의 청년돌격대원들도 오늘의 대고조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타는 마음안고 전투장마다에서 청년전위의 영예를 높이 떨치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선군청년총동원대회에서 채택된 호소문에 접한 이곳 청년돌격대원들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최후돌격전에서 청년전위들의 영웅적기개를 과시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 전투장마다에서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장 군 님 과 C N C (15)

집단에 김일성훈장을

현장에 척 들어서시니 온통 CNC기계였다.

CNC숲에 들어서신것만 같았다.

《장군님, 〈련하기계〉로 제품을 가공하니 정밀도가 아주 좋습니다. 질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로동자들이 좋아합니다.》

푸른 숲에 들어선 감회인들 이처럼 마음흐뭇하랴.

《그럼, 질이 올라갈수밖에…》

기쁨의 미소가 현장을 밝게 비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만족감에 넘치여 수행한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였다.

《〈련하〉에 표창을 단단히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해당 부문 일군에게 물으시였다.

《〈련하〉에 무슨 표창을 했던가?》

《련하기계관리국 성원들에게 박사학위도 주고 로력영웅칭호도 주고…》

일군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물으시였다.

《련하기계관리국에 김일성훈장을 주었던가?》

장군님의 재차 물음에 일군은 《없습니다.》라고 보고드리였다.

그이의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사랑의 파도가 일렁이고있었다.

현장의 가는 곳마다에서 《련하기계》 개발자들에 대한 자랑이였다.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기술을 배워준 청년에 대한 자랑속에도 련하기계관리국의 연구사의 이름이 올랐고 새로 완성한 통합생산지휘체계망에 대한 자랑속에도 련하기계관리국이 끼여있었다.

《련하기계》개발자들에 대한 칭찬이 자주 울려나올수록 장군님의 기쁨은 더욱더 커졌다.

《련하기계》와 공장들이 친숙해질수록, 가까와질수록 그만큼 CNC화의 폭이 커지고 CNC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런것을 생각하실수록 최첨단의 제일앞장에서 말없이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있는 련하기계관리국집단에 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는 더욱더 깊어지셨던것이다.

《련하기계》개발자들에게 박사학위와 영웅칭호를 주고 훈장도 주었으면 이번에는 집단자체에 큰 메달과 훈장을 안겨주고싶으신것이 장군님의 진정한 마음이였던것이다.

그로부터 얼마후 련하기계관리국에는 영예의 김일성훈장이 수여되였다. 크지 않은 과학기술집단이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실례는 아직까지 력사에 없는 일이였다.

이것은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들에 대한 표창이자 최첨단돌파전의 더 높은 고지에로 선구자들을 부르는 최고사령부의 신호성이기도 하였다.

그리움의 편지

흰눈이 강산을 뒤덮은 밤이였다.

삼라만상이 다 잠든 깊은 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편의 편지를 읽고계시였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각까지도 찬바람부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말 못하는 산천초목도 변이 난 이해의 눈과 비와 뙤약별속에 계신 절세의 애국자의 불멸의 강행군을 전하고있는 뜻깊은 이 시각 련하기계관리국의 CNC개발자들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달려가는 뜨거운 한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모여앉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로고 다 바쳐 키워주신 위대한 아버지께 드려야 할 인사가 너무도 많고 많은 자식들이기에 장군님을 목메여 부르는 우리들의 심장마다에서는 그리움의 눈물이 고여오릅니다.

변이 난 해 2009년은 CNC개발자들인 저희들의 운명에서 상상도 해보지 못한 큰 변이 일어난 영광의 해였습니다. …》

당장 먹을 쌀이 문제로 되고있는 그때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CNC라는 말은 너무도 거리가 멀었기에 성공의 기쁨을 조국앞에 마음껏 터치기에는 너무도 엄혹한 현실이 눈앞에 있었던 때의 이야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구상하신대로 드디여 CNC기술을 틀어쥐게 되였지만 우리들의 새 소식을 보고드리기에는 장군님께서 안고계시는 피눈물의 아픔이 너무도 크다고 생각하였던 마음의 고백도 있었다.

《…우리의 기술이 세계의 정수리에 높이 올라서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스승의 손길아래 드디여 첨단을 돌파하였지만 그때 성공의 언덕에서 저희들이 품었던 희망과 포부는 세계의 패권을 쥘만 한 CNC기계를 몇대만이라도 만들어내는것이였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저희들의 이 소박한 꿈과 소원을 강성대국이라는 거대한 세계와 하나로 이어주시여 천만군민모두가 CNC강국에서 살게 될 참으로 꿈 아닌 현실을 눈앞에 펼쳐주시였습니다. …》

뜨거운 추억의 글줄들이 소리없이 흘러가고있었다.

《…철모르는 아이들까지도 CNC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외우고 인민의 희망과 포부에서도 변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최첨단의 높은 언덕에서 혁명을 이끌어가시는 절세의 위인을 모신 우리 나라에만 있을수 있는 긍지높은 현실입니다. …

어버이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CNC개발자들로 높이 내세워주시여 온 나라의 축복속에서 살며 일하는 저희들의 긍지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으로 우리모두의 어깨는 더욱더 무거워지고있습니다.

…

고난의 길에서도 4축, 5축에서 성공한 우리가 변이 나는 이 시대의 8축, 9축CNC설비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어찌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최첨단돌파자들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목표를 따라 세계와 도전하면서 세계시장을 조선의 CNC판으로 만들어놓음으로써 백두산장군들의 존엄으로 빛나는 선군조선을 CNC와 더불어 빛나는 이름으로 긍지높이 불리우게 하겠습니다. …》

사연깊은 력사의 갈피를 번져주고 새로운 승리의 신심으로 가슴 불태워주는 편지였다.

조국과 혁명의 요구를 피와 살로 새기고 최첨단돌파전에로 부르는 령도자의 강행군길에 제일먼저, 제일 가까이 따라서며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는 이런 훌륭한 인민이 있기에 우리 조국에 더 큰 승리의 새날이 밝아오고있음을 그이께서는 확신하시였다.

조국이여, 인민이여, 미래를 향하여 또다시 나가자는 웨침이 그이의 마음속에 파도쳐오는것 같았다.

또다시 신들메를 조여매고 최첨단돌파전에로 대오를 이끌어갈 배심이 그이의 온몸에 불길치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편지의 앞표지에 활달한 필체로 써내려가시였다.

《2009. 12. 23.

김 정 일》

제 4 편
장군의 눈물은 뜨겁다

이제 무인화까지 하면 우리는 세계의 앞자리를 당당히 차지할수 있습니다.

김 정 일

강성대국건설의 마지막고지가 부강번영할 조선의 미래를 내다보며 높이 솟아있었다.

경제강국,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인 조선의 힘은 이제 경제강국이라는 이 승리의 고지와 함께 용암과도 같이 폭발될것이다.

경제강국의 무한한 저수지를 만들어내는 최첨단돌파의 새 소식이 조국강산의 곳곳에서 울려퍼지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시는 곳마다에서 예상할수 없었던 일들이 터져나 세상을 놀래우고있었다.

2. 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주체의 비날론이 터져나온 온 나라의 대경사로 하여 《비날론삼천리》라는 노래가 나왔으며 21세기 백리청춘과원에서 행복을 노래하는 인민의 모습을 담은 《사과처녀》라는 노래도 나왔다.

대계도간석지건설장의 기적이 사람들을 놀래웠고 룡성식료공장의 현대화와 무균화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삼일포특산물공장의 소식에 이어 선흥식료공장의 소식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평양곡산공장의 CNC화소식이 또한 인민들을 기쁘게 하였다.

공장, 기업소들만이 아니였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희한한 전변과 한드레벌의 새 풍경이 가슴설레이게 하고 우리 과학자들의 핵융합에서의 성공이 요란한 화제거리를 남기기도 하였다.

명절날 조국의 하늘에 터지는 우리의 새 축포가 또한 사람들에게 높은 희망과 포부를 안겨주었으며 만수대거리와 해방산기슭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 국립연극극장의 새 모습이 크나큰 환희와 열정을 안겨주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21세기 주체예술의 새 화폭을 펼치는 국립교향악단의 새 모습과 은하수관현악단과 삼지연악단의 노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과 연극 《산울림》과 같은 훌륭한 작품들, 《홍루몽》과 《네온등밑의 초병》과 같은 작품들이 무대우에 올라 시대를 들끓게 하였다.

봉화예술극장과 국립연극극장, 류경정주영체육관은 물론 황해북도예술극장과 같은 도예술극장까지 무대장치의 CNC화가 실현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있었다. 지어는 동해바다에서 등대의 CNC화소식까지 파도에 실려오고있었다. 인민경제전반에서 주체화, 국산화를 위한 경쟁이 고조되고있었다.

불과 몇해동안에 벌어진 사변들이였다.

참으로 그 모든것은 우리 조국의 발전을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운 CNC라는 말과 하나로 이어져있었다.

CNC에 대한 노래로 우리 조국의 자력갱생의 력사에 변에 변을 일으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생활력에 흥분을 금치 못하여 문필가들은 글을 써냈고 방송원들은 격조높이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뵙게 된 자리에서 문필가들이 《장군님, 련이어 변이 일어나는것을 체험하면서 미처 따라가며 글쓰기도 숨이 찰 정도입니다.》라고 흥분되여 말씀올린것이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변에 변이 련이어 일어나는 조국의 현실을 안아오시는 위대한 창조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끓어넘치는 흠모심을 금할수 없었던 기자들은 어려움도 잊고 그이께 이렇게 소청을 드리였다.

《장군님, 새 소식이 예견될 때마다 우리 기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시지 못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남보다 먼저 알고싶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문필가들은 《장군님, 인공지구위성을 쏘면 정론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하고 말씀드린적이 있었다. 어느 한 양어장에서 철갑상어가 바다로 나가게 된 사실을 남먼저 보았을 때 흥분된 감정을 금할수 없어하는 문필가들에게 장군님께서는 물고기는 바다로 나가고 조선은 세계로 나간다라고 제목을 달수도 있다고 말씀하신적도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자들의 소청을 들으시고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유모아를 하실 때처럼 유쾌한 표정으로, 그러시면서도 비밀을 말씀하시는것처럼 소곤거리는 동작으로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나는 조선로동당원이란 말이요. 당원이 조직의 비밀을 루설하면 안되지 않소? 그러나 한가지만은 말해줄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기자들은 장군님의 다음말씀에 온넋을 집중하였다.

그러는 기자들에게 장군님께서는 큰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지금까지는 초저변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초대변이요!》

《초대변말입니까?…》

문필가들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초대변… 그것은 사전에도 없는 말이였다.

사전에도 올라있지 않는 그 말이 어떤 내용을 안고있는가 하는것은 더 큰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는 조선의 희한한 현실들이 말해주었다.

그것은 온 나라의 CNC화를 통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가 안아온 경제강국의 붉은 노을이였다.

만장을 울린 시

2010년 1월 1일이였다.

조국강산에 함박눈이 소담하게 쌓여 새해의 풍경을 더욱더 돋구어주는 양력설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뜻깊은 자리에서 한편의 시가 울리고있었다.

아직은 누가 지은것인지 알수 없었다.

요란한 박수소리와 함께 시랑송이 끝났다.

여기저기에서 저마끔 흥분된 마음을 토로하는 격동적인 화폭이 펼쳐졌다.

우리 장군님께서 나라의 CNC화를 위하여 자강도의 눈보라를 헤치시던 그날의 체험자로서 한마디 할것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펼치는 일군들도 있었고 CNC에 대하여 자기가 아는것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지금까지 CNC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불렀지만 거기에 얼마나 위대한 력사의 사연이 깃들어있는가 하는것을 몰랐다고 진정을 토로하는 문필가도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자애로운 미소속에 지켜보시던 장군님께서는 모두들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많은 식구를 가진 아버지가 아들딸들에게 세월의 한 갈피에 대하여 이야기하듯이 평온한 음성으로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동무들은 CNC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다는 모를것입니다. 나는 금방 시를 들으면서 CNC화를 결심하고 걸어온 길을 다시한번 돌이켜보았습니다. 사연도 많았습니다. …

시를 들으니 우리가 가장 준엄한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오늘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식 CNC화를 개척해온 나날들이 더욱더 추억깊이 되새겨집니다.

나는 지금도 피눈물속에 1994년을 보내고 1995년 4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CNC기계인 〈련하기계〉를 보아주던 일을 잊을수 없습니다. …》 세상에서 오직 그이만이 간직하고계신 소중한 이야기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크나큰 희열과 눈물속에서 걸어오신 혁명의 행군길을 또다시 뒤돌아보시게 한 그날의 시는 다음과 같았다.

장군의 눈물은 뜨겁다

(김효봉 지음)

흥겨운 CNC노래가 장내를 울릴 때
누구나 어깨들썩 웃음절로 지을 때
나는 보았노라 단 한분
우리 장군님의 눈굽 뜨겁게 젖고있음을

어제도 그러하시고 오늘도 그러하시여라
그 노래 들으시면
자신을 다잡지 못하시는 그이
장군님 말씀하시여라
…CNC는 나의 사랑이요
CNC는 나의 심장과 련결되여있소

아, 우리 장군의 마음에
그렇게 자리잡고있었구나 CNC는

어이 다 알랴 알수 있으랴
피를 나눈 전사의 이름처럼
생사를 같이한 전우의 이름처럼
뜨겁게 CNC를 부르시는 그 심중
그 눈물에 어린 하많은 추억
파란만장 사연, 시련의 무게를

숨죽은 공장과 불꺼진 마을들을 두고
나라와 민족의 생사운명을 두고
가슴속에 뚝뚝 피가 맺혀 떨어지는
그 아픔을 절감한 장군님 심장만이
그 모진 진통을 다 이겨낸 장군님 심장만이
안아올수 있고 추억할수 있는 무게여라

수령님을 잃은 비애의 하늘아래
횡포한 자연의 재난까지 휩쓸던 이 땅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제재와 압살의
포위환앞에서
그이는 분연히 일떠서시였거니
그 처절한 역경의 풍랑속에서
순경의 돌파구를 여시려
장군은 빙설 6천여리 강계길로 오르시였다
푼푼이 모은 돈 땀젖은 손에 쥐시고…

오, 영원히 잊을수 없는 고난의 행군
그때의 그 많지 않은 돈
그 돈은 강반석어머님 삯빨래와
삯바느질로 한푼두푼 모아
백두산에 오르시는 수령님 손에 쥐여주셨던
그 20원과도 같이
사랑과 정이 어리고 애국의 열이 스민
작으나 귀한 돈이였다
작으나 큰 돈이였다
바로 그 돈을 밑천으로 CNC가 태여났다

CNC, 그것은 아무런 형체도
누구의 방조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최첨단을 장하게 돌파하며
장군님 태동시키신 선군의 실체
장군님 사생결단의 의지의 전쟁속에 마련하신
조선의 실체

정녕 CNC는
내 나라, 내 조국을 강성대국으로 우뚝 세우고
사랑하는 인민을 제일 잘살게 하시려는
그이의 뜻과 신념, 리상과 념원, 불굴의 정신력이
하나의 태줄로 이어진 위대한 생명체이여라!

아, 흐느끼며 오열을 터뜨리시는
장군의 그 모습을 내 우러르노라
장부의 눈물은 피보다 더 진하고
불보다 더 뜨겁다 하였거니

천하를 쥐락펴락하시는
절세의 영웅남아 빨찌산장군
그 심장에서 솟구쳐 흘러나오는
그 고결한 눈물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내 감격에 목메이노라
내 얼마나 위대한분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행운아인가 복받은 인생인가

돌이켜보면 이국땅 류랑살이가 서러워
많이도 울어본 소년
내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
어린 마음에도 강기를 세웠던 소년

하여 어려서부터 나에게
눈물은 노래가 아니였어라
허나 내 오늘 장군의 눈물앞에서
누리를 향해 심장의 노래를 한껏 터치노니

세상에 우리 장군님같은
사랑의 어버이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대성인이
또 어데 있으랴

애국애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으로
선군조선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승리
세계를 향해 휘황한 미래를 펼치시는
위대한 인간 김정일동지이시여!

CNC노래와 더불어 격정을 터뜨리시는
오, 장군의 눈물은 뜨겁다
우리 장군의 눈물은 뜨겁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테헤란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각하

나는 이란새해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새해에도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이슬람교혁명의 전취물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0(2011)년 3월 16일 평양

윈드후크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

히휘케푸네 포함바각하

나는 나미비아독립 21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이며 형제적인 친선협조관계가 가일층 공고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의 옳바른 령도밑에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귀국정부와 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0(2011)년 3월 20일 평양

심장에 새겨주신 백두의 혁명정신

—당창건사적관에서 참관자들 최충성 찍음—

력사를 되새겨보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백두의 혁명정신은 선군조선의 정신력을 천백배로 다져주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에로 떠밀고나가는 영원한 사상정신적재보이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대고조격전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힘있게 다그쳐가고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필승의 신심드높이 비약의 폭풍이 일어번지는 내 나라 가는 곳마다에서 울려퍼지는 이 구호는 그대로 백두의 혁명정신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깊이 간직한 김일성민족의 불굴의 정신력의 거세찬 발현이다.

온 나라 천만군민모두를 정신력의 최강자들로 키우신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혁명은 백두산에 그 뿌리를 두고있으며 조선의 정신은 바로 백두산의 정신입니다.》

일찌기 수십년전 사나운 눈보라를 뚫고 몸소 백두산에 오르시여 백두의 혁명정신을 필승의 보검으로, 영원한 조선의 정신으로 높이 추켜드시고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이시다.

주체61(1972)년 5월 31일이였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백두산의 날씨는 참으로 사나왔다. 아침부터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눈보라가 세차게 일어번지여 한치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백두산에로의 행군길에 오르시였다.

너무도 기승을 부리는 눈보라에 일군들은 그이의 건강이 념려되여 후날 날씨가 좋을 때 오르실것을 거듭 아뢰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며 백두산에 올라가보아야 백두산의 진미를 알수 있다고,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고난의 행군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난의 행군길이 철의 불바다라면 이 길은 꽃핀 들길이라고 마디마디 깊은 뜻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눈발이 뽀얗게 흩날리는 백두산정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내가 왜 눈보라사나운 이런 날에 백두산에 오르려고 하는지 아는가? 백두밀림에 차넘치던 백두의 혁명정신이 어떤 간고한 시련속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것을 마음속으로나마 더 깊이 체득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백두의 사나운 눈보라와 맞서도 보고 험한 눈길도 헤쳐보면서 고난의 행군길을 돌이켜보아야 조선혁명이 어떤 혈로를 헤쳐왔는가 하는것을 깊이 깨달을수 있고 앞으로 우리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이 가로놓여도 쉽게 극복할수 있다. …

백두의 산발을 쩌렁쩌렁 울리는 그이의 말씀은 일군들로 하여금 백두산에로의 행군길이 조선혁명의 미래와 잇닿은 성스러운 길임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하였다.

백두의 담력과 기상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천출명장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일행은 회오리치는 눈보라를 헤치며 다시금 전진해갔다.

드디여 일행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을 때였다. 주인을 알아본듯 백두산은 광풍을 멈추고 자기의 장엄하고 수려한 자태를 드러내놓았다. 바라볼수록 장관이였다.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을 오래도록 부감하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백두밀림의 설경이 매우 숭엄하고 아름답다고, 우리가 눈보라를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서 내려갔더라면 이 절경을 볼수 없었을것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께서 력사의 그날 헤치신 백두산에로의 행군길은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억년 드놀지 않는 신념으로 새겨준 참으로 성스러운 로정이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그것은 만난을 맞받아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그것은 꺾이면 꺾일지언정 신념을 버리지 않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며 제힘으로 기어이 이 땅에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려는 숭고한 혁명정신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크나큰 격정에 넘쳐 가슴을 들먹이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영원히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자, 이것이 오늘 내가 백두산에 올라 더욱 굳게 다지게 되는 결의이고 또 동무들에게 하고싶었던 말이라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영원히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그것은 그 어떤 모진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백두의 혁명정신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우리 혁명을 끝까지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가시려는 위대한 백두령장의 드팀없는 신념의 분출이였으며 그 길에서 천만군민모두가 충실한 혁명동지가 될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이였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조국의 운명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우리 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인 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변함없는 의지이다.

몇해전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은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의 근본원천이며 영원한 조선의 정신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백두의 혁명정신은 조선혁명의 어제와 오늘뿐아니라 래일의 승리도 확고히 담보하는 필승의 보검, 힘있는 원동력이다.

천만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이 땅우에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백영미

모든 힘을 인민생활대고조에로!

공동사설의 과업을 받들고 봄철영농전투조직을 실속있게 짜고들자

정확한 분석판단과 옳은 결심채택

평원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원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씨뿌리기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놓았다. 이 성과는 수시로 변화되는 기상조건과 경영조건을 비롯한 농업생산조건들에 대한 군일군들의 정확한 분석판단과 옳은 결심채택이 안아온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작전을 잘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올해의 벼모판씨뿌리기작전을 펼치면서 군일군들이 한가지 새롭게 본것이 있다. 그것은 시기성보장문제였다.

벼모판씨뿌리기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늘 해온 일이라고 하여 새롭게 타산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작전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군일군들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분발해나섰다.

날씨가 불리했던 지난해 농사에서 성과를 거둔 농장, 작업반, 분조들의 비결을 분석해본 결과 벼이삭패기적기에 기초하여 모종류별, 품종별에 따르는 모내기적기를 정확히 규정하고 그에 맞게 씨뿌리기를 질적으로 한것이 일치한 점이였다.

모내기최적기를 보장할수 있게 씨뿌리기시기를 정하고 그를 정확히 지키는것, 바로 이것이 지난해농사과정을 분석하면서 일군들이 찾아낸 다수확의 중요한 비결이였다.

군일군들은 여기에 기초하여 우선 이삭패기적기에 기초한 협동농장들의 씨뿌리기시기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군일군들이 수십년간의 논벼수확고자료를 가지고 과학자들과의 련계밑에 계산한데 의하면 평원군의 기상기후조건에서 벼이삭패기적기는 품종별로 조금씩 차이나기는 하지만 대체로 8월 10일부터 한주일기간이였다. 이삭패기적기에 기초하여 품종별모내기적기를 계산한데 의하면 5월 하순부터 보름남짓한 기간이였다.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이 시기에 모내기를 기본적으로 해제끼면 논벼 정보당 수확고를 쑥 높여 군적인 알곡생산량을 훨씬 늘일수 있을것이였다.

군일군들은 지난 기간의 농사경험에 기초하여 모내기최적기를 보장하면서도 소출을 최대한 높일수 있게 영양랭상모를 줄이고 속성모를 대담하게 늘이며 3월말에 랭상모씨뿌리기를 끝내는것으로 모종류별, 품종별 씨뿌리기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씨뿌리기일정계획을 아무리 빈틈없이 세워놓았다고 하여도 날씨가 좋지 못한 경우에는 씨뿌리기가 지연될수도 있다. 군의 경우에 례년에 없는 강추위로 땅이 지난해보다 근 20㎝나 더 깊이 언 실정에서 해토되는 시기를 장담할수 없는것이 문제였다. 더우기 3월 상순과 중순의 농업기상예보는 일군들로 하여금 혁신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자연에 맡겨놓고 해토되기를 기다리다가는 과학적으로 세운 씨뿌리기일정을 보장할수 없었다. 벼모판바람막이바자치기와 물대기를 빨리 하면 모판자리의 땅녹는 시기를 며칠 앞당길수 있다는데로 군일군들의 생각이 합쳐졌다.

군책임일군들은 집체적협의에 기초하여 옳게 판단하고 결심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3월 15일경부터 모판물대기를 했다면 올해에는 한주일정도 앞당겨 하기로 하였다. 바람막이바자치기와 모판만들기 역시 지난해보다 열흘이상 앞당기기로 하였다.

군책임일군들은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원화협동농장과 삼봉협동농장을 본보기로 하여 씨뿌리기준비에서 비약을 일으키도록 조직사업을 하였다.

원화, 삼봉협동농장들에서 벼모판바람막이바자치기는 3월 13일까지, 모판만들기는 3월 15일까지 완전히 끝낸데 이어 다른 협동농장들에서도 바람막이바자치기와 모판만들기를 속속 끝내였다.

군일군들이 잘한것은 또한 씨뿌리기시기의 자연기후조건을 예견하고 그 어떤 정황에서도 씨를 뿌릴수 있게 미리 대책을 세워놓은것이였다.

지난 기간의 경우를 놓고보면 어떤 해에는 봄비가 지꿎게 내려 씨뿌리기를 중단하는 일이 없지 않았다. 올해에도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수 없었다. 이 문제를 놓고도 역시 군일군들은 창조적으로 사색하고 작전하였다.

애써 노력하고 머리를 쓰면 방도는 나오는 법이다. 결과 협동농장들에서는 봄비가 내려도 씨뿌리기를 할수 있게 모판둘레에 배수로를 그 어느때보다 깊숙이 쳐놓고 씨앗을 묻은 다음 모판에 덮을 복토에 대한 비막이대책도 미리 세워놓았다.

종자처리를 혁신적으로 하도록 한것 역시 씨뿌리기시기성보장을 위하여 군일군들이 새롭게 작전하고 실천한 문제이다. 덕제, 석교, 문흥협동농장들에서는 농장기술일군들이 종자처리를 집체적으로 하여 씨뿌리는 시기에 작업반 분조들에 매일 공급해주는것을 정상화하였다. 이렇게 하면 작업반단위로 종자처리를 할 때보다 그 질이 높아지고 씨뿌리기적기를 보장하는데도 유리하였다.

군일군들은 이 농장들처럼 종자처리를 집체적으로 하도록 조직사업을 따라세우고 문흥, 남산, 청룡, 운봉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협동농장들에서 받아들이고있는 레이자빛에 의한 종자처리를 더욱 실속있게 하여 싹트는률을 높이도록 대책을 세웠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지만 한해농사의 첫 공정인 씨뿌리기의 성과여부 역시 한개 군의 농사를 책임진 일군들이 주객관적조건들을 어떻게 분석판단하고 어떤 결심을 채택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농업생산의 주객관적조건들을 정확히 분석판단하고 옳은 결심채택으로 씨뿌리기준비를 잘하도록 대중을 조직동원한 군일군들의 혁신적일본새는 본받을만 한것이다.

본사기자 김향란

적기보장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

농업은 공업과 달리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여 생물체를 다루는 생산부문인것만큼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생산은 시기성을 요구하는것만큼 농사에서 적기적작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논벼농사에서 해당 지대의 기상조건과 품종별특성을 고려한 이삭패기적기에 기초하여 모종류별씨뿌리기적기, 모내기적기를 정확히 규정하고 그를 철저히 지키는것은 자연자원과 영농자재를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정보당 알곡소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품종별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씨뿌리기를 앞당기면 모내기도 그만큼 앞당겨야 한다. 그렇게 되면 박막, 모판자재 등 영농물자들을 많이 소모하면서도 봄철의 낮은 온도조건으로 모가 잘 자라지 못하고 또 모를 낸 후 모살이기간이 길어지면서 비료의 효과성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생육전반기에 병해충피해를 심히 받을뿐아니라 생육후반기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에 의한 피해를 받아 논벼 정보당 소출이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적기보다 늦게 씨를 뿌리면 모내기도 늦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소출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논벼이삭패기적기에 기초하여 씨뿌리기적기를 정확히 규정하고 그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면 논벼이삭패기적기에 기초하여 씨뿌리기적기를 규정하는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우선 해당 지대의 품종별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농업과학자들이 이삭패기적기를 계산한데 의하면 장소와 품종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8월 15일을 중심으로 열흘기간이다. 이삭패기적기에 기초하여 품종별모내기적기를 계산한데 의하면 늦종과 중간늦종들은 5월말까지, 중간종과 중간올종들은 6월 상순경에 모내기를 하여야 정보당 소출이 높아진다. 이에 맞게 모종류별로 씨뿌리기적기를 바로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단위의 비료보장조건, 농약확보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자면 땅속의 영양물질을 최대로 리용할수 있게 모내기시기와 씨뿌리기적기를 바로 규정하여야 한다. 대기온도가 17~18℃이하로 낮은 시기에 모내기를 일찍 하면 뿌리의 영양물질흡수기능이 심히 떨어지고 체내 영양물질저장량의 소모가 많아지면서 모살이기간이 길어져 논벼 아지치기와 후기생육에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농약확보대책이 없이 어린 모를 일찍 내면 병해충피해를 심하게 받을수 있을뿐아니라 김에 의한 피해까지 겹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다음으로 모종류별면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랭상모는 모잎수가 5.5~6잎으로서 높은 소출을 낼수 있는 좋은 점이 많으나 모판면적이 많이 들고 박막을 비롯한 영농자재와 로력이 퍼그나 소비된다. 그러므로 속성모, 영양랭상모를 비롯한 앞선 모기르기기술을 적극 배합하면 씨뿌리기적기와 모내기적기를 보장하면서도 최대의 실리를 얻을수 있다.

씨뿌리기적기규정에서는 두벌농사면적, 로력조건 등 경영조건도 고려하여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은 지대별기상기후조건과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을 환히 꿰들고 씨뿌리기에서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모내기를 비롯한 다음영농공정들을 제철에 질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농업성 처장 주철규

짧은 기간에 물길을 보수

고원군 상산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물이 차지 못한 저수지들에는 빨리 물을 채워놓고 관수시설도 제때에 수리정비해놓아야 합니다.》

고원군 상산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한해농사에서 물보장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물길정리에 큰 힘을 넣었다.

물길이 많은 농장의 특성에 맞게 새로 정리해야 할 물길구간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이곳 일군들은 작업반별로 과제를 준 다음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정리작업을 다그치도록 하였다.

물길정리가 시작되자 온 농장이 끓어번지였다.

현장에 내려간 일군들은 농장원들에게 지난해에 물길을 잘 정리해놓고 덕을 본 경험을 이야기해주면서 그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켰다.

일군들부터가 앞채를 메고 대오의 앞장에 서서 농장원들을 이끌었다.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타번지는 속에 물길정리작업은 첫날부터 힘있게 다그쳐졌다.

제3작업반원들이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을 지켜섰다는 긍지와 자각을 안고 물길정리를 다그쳐나갔다.

작업반장 김영철동무를 비롯한 이곳 작업반의 초급일군들은 로력조직을 빈틈없이 하고 로력일평가사업을 정확히 하여 농장원들이 맡은 일을 실속있게 해나가도록 하였다.

제2작업반원들도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물길정리에서 높은 열성을 발휘하였다.

이곳 작업반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적혁신으로 날마다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뜻깊은 올해 농사에서 기어이 장훈을 부르려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물길정리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본사기자 홍성철

하천을 정리하여 새땅을 찾았다

연산군에서

연산군에서 신락리지구의 하천정리를 계속 힘있게 내밀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보름남짓한 기간에만도 수만㎥의 토량을 처리하여 수㎞구간의 하천바닥을 낮추고 제방을 쌓았다. 그리고 1만여㎡의 제방경사면에 돌을 쌓고 그우에 화물자동차들이 쉽게 어길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정보의 새땅을 찾아냈으며 이 지구를 그 어떤 큰 물에도 끄떡없는 안전한 농사지대로 전변시키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부침땅이 적은 우리 나라에서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합니다.》

공동사설의 과업을 받들고 군에서는 올해에 하천정리를 손색없이 끝내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웠다.

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은 당의 원대한 국토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울 한마음안고 떨쳐나서면 그 어떤 일도 능히 해낼수 있다고 호소하면서 군안의 일군들을 불러일으켰다.

일군들은 저저마다 하천정리사업을 자체의 힘으로 통이 크게 내밀기 위한 혁신적인 안들을 내놓았다.

군에서는 해당 부문과의 련계밑에 중기계들을 대담하게 들이밀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리고 일군들이 군안의 여러 기관, 기업소들을 맡고나가 로력과 운수수단들을 총집중하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군의 농업부문, 국토부문 일군들이 하천정리를 전투적으로 와닥닥 끝내기 위한 설계를 완성하였다.

지휘부를 현장에 꾸려놓은 군일군들은 하천바닥파기와 돌운반, 제방쌓기에 중기계와 수송수단들을 집중하고 제방돌쌓기, 도로닦기, 잔디입히기를 적극 따라세우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하천정리공사장에서는 시작부터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군책임일군들이 불도젤을 함께 타면서 운전수들에게 불굴의 정신력으로 끝장을 볼 때까지 내밀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신심을 북돋아주어 그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그리고 작업대상과 조건에 맞게 중기계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큰돌추어내기를 앞세우면서 하천바닥파기를 내밀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따라세웠다.

중기계운전수들은 하천바닥의 곳곳에 박혀있는 큰 바위돌들을 파내고 하루 수백㎥의 토량을 처리하면서 혁신을 일으켰다. 그에 뒤질세라 자동차운전사들은 돌운반을 적극 따라세웠다.

제방돌쌓기와 도로건설에서도 혁신이 일어났다.

기관,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송수단들을 집중하여 제방우에 돌과 흙을 깔고 다지면서 자동차들이 마음대로 다닐수 있는 도로를 번듯하게 닦아놓았다. 이들은 짧은 기간에 제방경사면에 대한 돌쌓기를 질적으로 끝낸 기세로 잔디입히기도 정성껏 하고있다.

뜨거운 조국애를 안고 분발해나선 신락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새로 찾아낸 땅에서 올해에 높은 알곡소출을 내기 위한 토지정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영철

앞선 벼모생산을 위한 씨뿌리기방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대는 기술혁명의 시대인것만큼 앞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알곡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습니다.》

앞선 벼모생산을 위한 씨뿌리기방법중에서 속성모와 영양랭상모의 씨뿌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속성모

속성모는 일반랭상모보다 평당 씨뿌림량이 2배이상 많으며 모잎수가 4.5~5잎정도 될 때 뿌리에 흙이 붙은채로 모내기를 한다.

속성모의 우점은 뿌리가 상하지 않은채로 모내기를 진행함으로써 모살이가 빠르고 아지치는 힘이 센것이다. 또한 차단재료를 깐 모판에서 벼모를 기르기때문에 모뜨기가 쉬우며 모판면적과 모기르기에 드는 영농자재와 로력을 절약할수 있다.

속성모생산을 위한 씨뿌리기를 잘하자면 모판자리를 양지바르고 랭습하지 않으며 물을 모판에 마음대로 대고 뺄수 있는 곳에 정해야 한다.

모판흙은 비옥도가 높은 논토양의 흙과 질좋은 부식토를 7:3정도 되게 섞어 리용하여야 한다.

씨뿌리기를 하자면 감이 든 모판에 차단재료를 깔고 준비한 모판흙을 1.5~2㎝정도 고루 편 다음 수평고루기를 하여야 한다.

모판이 어느 정도 감이 들면 싹틔운 씨앗을 뿌려야 한다. 그래야 뿌리가 상하는 현상을 막고 벼모생육을 좋게 하여 알곡소출도 높일수 있다. 씨뿌린 다음 싹이 돋아나올 때까지의 물기를 80%정도 보장하는것이 좋다.

영양랭상모

영양랭상모는 일반랭상모보다 평당 씨뿌림량이 7배정도 많으며 모잎수가 3.5~4잎되는 벼모로서 영양흙이 뿌리에 붙은채로 모내기를 한다.

영양랭상모의 우점은 씨뿌림량이 많으므로 모판면적과 로력, 자재가 절약되며 영양흙이 붙은채로 벼모를 내기때문에 모살이가 빠르고 아지치기가 잘되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는것이다.

영양랭상모생산을 위한 씨뿌리기를 잘하자면 무엇보다도 모판자리를 잘 정해야 한다. 모판자리는 해빛이 잘 들고 습하지 않으며 물을 대고 빼는데 편리한 곳이여야 한다.

씨를 뿌릴 때에는 먼저 차단재료를 모판우에 고루 펴고 그우에 흙을 일정한 두께로 뿌린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을 먼저 대고 수평고루기를 진행한 다음 씨뿌리는 경우와 마른상태에서 씨를 뿌린 후 물을 댔다 떼는 방법이 있다.

영양랭상모는 씨뿌림량이 많으므로 싹이 돋아나올 때 씨앗을 덮은 흙이 통채로 들뜨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박막을 벗기고 물을 얕게 댔다 떼거나 가벼운 후리채로 두드려 들뜬 흙이 가라앉게 해야 한다.

농업과학원 과장 리택균

전력계통을 합리적으로

신의주시송배전소에서

신의주시송배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전력계통을 보다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새 변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건설을 본때있게 다그침으로써 총공사량의 70%를 해제끼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북도당위원회와 신의주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송배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생활대고조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여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주민세대들의 전력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조선수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신의주지구의 송배전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이고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는 등 지난 기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새 변전소를 질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와 시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새 변전소건설을 다그치는 이곳 송배전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그리하여 이곳 송배전소의 종업원들은 지난 1월 새 변전소건설을 위한 착공의 첫삽을 박고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리면서 기초공사를 힘있게 내밀었다.

도와 시의 책임일군들은 자주 현장에 나가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었으며 신의주시녀맹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하여 시안의 공장, 기업소일군들도 물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변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해 최대의 진격속도로 질풍같이 달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전력을 보내주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본보기단위선정과 일반화의 위력

청단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경험을 놓고

당면한 영농전투로 들끓고있는 청단군의 협동농장들에 가면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화제에 오르는 말이 있다. 그것은 올해 영농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된 보여주기사업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만큼 올해에 농사차비와 관련하여 군당위원회가 조직한 보여주기사업은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 떨쳐나선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농사차비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안아오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옳은 방법론이 없이는 당사업을 능동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없으며 당사업에서 실효를 거둘수 없습니다.》

군에서 농사차비와 관련한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된다는것을 선포한 어느날이였다. 어느 한 협동농장의 흙보산비료생산전투장에 내려갔던 군당책임비서 리영남동무는 생산된 비료의 질이 생각보다 높지 못한 사실에 주의를 돌리였다. 그곳을 담당한 일군은 조건에 많이 관계된다고 주장하고있었지만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였다.

군당위원회 부장 로명호동무가 담당한 영산협동농장에서 생산된 흙보산비료는 량적으로뿐만아니라 질적수준에서도 군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조건을 놓고볼 때 별로 차이는 없었다. 군당책임일군은 농장을 담당한 일군들을 만나 담화하는 과정에 이 문제가 일군들의 실력과 련관되여있다는것을 포착하였다.

정확한 판단이였다.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는 오늘날 일군들이 농사지도를 잘하자면 알아야 한다.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 열백을 알게 해야 한다.

문제를 이렇게 세운 군당위원회는 우선 일군들을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밀고나갔다. 그후 군당위원회일군들은 물론 군급기관의 부원이상 일군들에게는 농업상식수첩이 생겨나게 되였다. 작업복웃주머니에 넣어가지고다니면서 아무때나 볼수 있게 크기도 알맞춤하게 만들어진 수첩에는 유기농법이란 무엇이며 그 우월성과 올해 담당한 단위에서 정한 논벼와 강냉이의 품종, 평당 포기수 등 100가지 농사일에 대한 해답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일군들은 그 수첩을 늘 가지고다니면서 학습하였다.

그 과정에 일군들은 선진적인 영농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농사지도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였다. 이것은 올해 군당위원회가 조직한 보여주기사업의 질적수준이 여느때없이 높아지게 된 동기라고 말할수 있다.

보여주기의 수준은 곧 일군들의 조직사업능력이다. 이것은 군당위원회가 농사차비와 관련한 보여주기사업을 준비하면서 들고나온 문제였다.

영농공정이 바뀔 때마다 농업부문의 당 및 행정경제일군들을 위한 보여주기를 조직한것은 군당위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고있는 사업이였다. 지난 시기 보여주기는 많은 경우 한개 농장의 사업으로 되여왔었다.

그러다나니 모든 단위가 끓지 못하고 그 단위의 사업으로 그치기가 일쑤였다. 군당위원회는 올해 보여주기사업을 혁신적으로 진행하였다. 지난 시기처럼 보여주기대상을 한두개 대상으로 정한것이 아니라 여러개 단위로 늘이였다.

모든 단위가 농사차비로 끓게 하고 그 과정이 곧 군안의 농사준비를 완료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되여 벌방지대에 위치하고있는 남촌리와 중간지대라고 볼수 있는 동대농장과 삼정리 그리고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군농기계작업소와 군관개관리소, 군농기구공장이 보여주기대상으로 선정되게 되였다. 그 단위들을 따라앞서기 위한 투쟁이 경쟁적으로 벌어지는 과정에 실효는 나타났다. 지난 시기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마룡리와 룡포리가 농사준비를 한달이나 앞당겨 끝낸 사실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중시한 문제는 앞선 단위를 내세우고 그들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군안의 전반적농사준비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한것이다.

대용연료에 의한 발동발전기로 뜨락또르와 양수설비, 중소농기구를 자체로 수리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웠을 때였다.

군당위원회는 보여주기대상을 토대가 비교적 있는 단위로 정하였다. 앞선 단위는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하며 뒤떨어진 단위는 앞선 단위의 수준을 따라잡기 위한 경쟁을 벌리는 과정에 농사준비에서 앙양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이 발동발전기를 만드는데서 가장 어려운 몫을 맡아나섰다.

농기계작업소에서 대용연료에 의한 이동식발동발전기를 완성하였을 때였다.

군안의 농업부문의 당 및 행정경제일군들을 위한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대용연료를 리용하여 선반을 돌리고 뜨락또르를 50대나 자체로 수리해낸 이들의 일본새는 일군들에게 자기 단위의 생산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일할 때 길은 언제나 열린다는 자각을 안고 분발하게 하였다.

청정리를 비롯한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발동발전기를 자체로 만들어 뜨락또르부속품과 소농기구를 생산하기 위한 치렬한 경쟁이 벌어지였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타오르는 가운데 군관개관리소의 일군들은 기술자, 로동자들과 합심하여 대용연료에 의한 발동발전기를 리용하여 부속품을 생산하고 양수설비를 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기구공장에서는 대용연료에 의한 발동발전기로 용선로를 돌려 지난해보다 소농기구생산을 2배로 높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지난 2월 농사준비를 한달이나 앞당긴 청단군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시작부터 반영이 좋았다.

당장이라도 씨뿌리기를 할수 있게 모든 준비가 완료된 포전들도 흠잡을데 없었다. 특히 분조장이상 일군들이 포전략도를 가지고다니면서 농사지도를 구체적실정에 맞게 해나가고있는 깐진 일본새는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보여주기사업을 계기로 군의 농사차비가 완료되게 한 군당위원회일군들의 혁신적이며 진취적인 일본새가 가져온 응당한 귀결이였다.

본사기자 손영희

조국이여 그대에게는 룡성이 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1제관직장 로동계급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흥남가스화공정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소식은 온 나라를 흥분으로 설레이게 하고있다.

드넓은 건설장에 거창하게 일떠선 웅장한 구조물들과 집채같은 대형설비들이 줄지어 늘어선 희한한 광경을 보시며 커다란 기쁨속에 환히 웃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은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욱 굳게 안겨주었다.

선군의 대지에 뿌리를 박고 주체조선의 위용을 떨치며 우뚝 솟은 대형설비들은 룡성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낸것들이다.

공장을 낳는 어머니공장, 힘있는 기업소로 자랑떨쳐온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응축분리탑과 수소정제탑, 탄산가스흡착탑을 비롯한 흥남가스화공정건설에 필요한 대형설비들을 마음먹은대로 쨍쨍 만들어내고있는것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진군길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기적이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시련과 난관을 박차며 승리의 결승선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영웅적룡성사람들의 앞장에는 1제관직장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서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있습니다.》

—흥남가스화대상설비생산에서 룡성의 본때, 룡성의 기질을 다시금 떨치자!

직장장 정수철동무를 비롯한 1제관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런 배짱과 투지를 가지고 일떠섰다.

대형통풍기를 제작할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수십개의 토막들을 용접하여 짧은 기일안에 조립한다는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였지만 용접과정에 생길수 있는 제작물의 변형을 막으면서 기술적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였다.

하지만 룡성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흥남가스화대상설비들은 모두 우리 장군님께서 보아주실 설비들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최단기간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자.)

한영철, 박명히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장들은 반원들과 지혜를 합쳐가며 제작물의 변형을 막기 위한 장비를 만들었고 낮에 밤을 이어가며 용접의 불보라를 날리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리만화로인은 제관작업장을 떠나지 않고 젊은이들과 일손을 같이하고있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높은 기술과 풍부한 경험으로 기발한 착상을 내놓으면서 새 세대들을 이끌어가는 오랜 기능공이였다.

작업의 휴식참에 로동자들인 리규철, 방선호동무들이 리만화로인에게 다가갔다.

《아바이, 지난날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리만화로인의 눈가에 회억의 빛이 어리였다.

《우리가 맨손으로 8m타닝반과 3000t프레스를 제작하여 세상을 놀래웠던 천리마대고조시기를 어찌 잊을수 있겠나. 1970년대에는 18m타닝반을, 1980년대에는 손꼽히는 몇개 나라들에서만 만든다는 1만t프레스와 원추형파쇄기를 만들어 세계를 들었다놓은것도 우리 룡성이였지. 그래서 사람들이 룡성의 력사는 기적창조의 력사라고 말하는게 아니겠나.》

로인은 잠시 숨을 돌리고나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룡성의 기적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니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는 불타는 심장이 낳은 필연이였거던. 자네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실려있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길 바라네.》

로인의 절절한 당부는 새 세대 로동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우리 혁명의 년대기마다 영웅적조선인민의 본때와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며 당과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앞장에서 받들어온 전세대의 넋과 전통을 이어 강성대국건설의 진군길우에 또다시 기적과 비약의 자욱을 수놓아갈 억센 신념과 의지가 드넓은 제관작업장에 나래쳤다.

《미제의 제재와 봉쇄를 자력갱생의 보검으로 쳐갈기자!》

룡성사람들은 이 글발을 자기들의 일터에 큼직하게 내다붙이고 총공격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응축분리탑제작은 그들앞에 나선 또 하나의 중요한 전투임무였다. 그 제작은 첫걸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철판을 분사가공하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일부 사람들은 기존의 방법대로 무거운 철판을 한장씩 기중기로 들어올린 다음 분사가공하자고 하였다. 하지만 룡성로동계급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렇게 하면 도저히 제작날자를 보장할수 없었던것이다.

(어떻게 하면 수많은 철판들의 분사가공을 최단기일에 끝내겠는가.)

일군들도 로동자들도 이 하나의 생각으로 모대기였다.

이때 직장장 정수철동무가 한걸음 나섰다.

《철판들을 대차우에 세워놓고 책장을 번지듯 한장씩 넘기면서 분사가공하는것이 어떻소?》

순간 로동자들속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너무도 기발한 착상이여서 누구나 두손을 들어 찬성하였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모두 떨쳐나 철판들에 대한 분사가공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쳤다.

룡성이 온 나라의 앞장에서 달려야 부강조국건설의 거세찬 맥박이 이 땅우에 굽이치고 룡성이 소리치며 기적과 위훈의 기발을 더 높이 들 때 승리의 돌격로가 열린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뼈와 살에 뜨겁게 새겨안은 그들이였다.

—당의 의도대로 흥남가스화공정건설을 빨리 끝내는가 못끝내는가 하는것이 대상설비제작에 달려있다. 온 나라가 우리 룡성의 로동계급을 바라보고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더 빨리 비약하자!

이것이 룡성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서 울려퍼진 불같은 웨침이였다.

용접공들인 김동원, 송길룡, 제관공인 최성국동무를 비롯한 로동자들은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합쳐 그처럼 어렵다고 하던 경판제작과 철판다층말이용접을 보란듯이 해제꼈다.

난관은 그들의 걸음걸음을 막아나섰다.

응축분리탑제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내부랭각관체를 분리탑의 동체안에 어떻게 넣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발전되였다고 하는 다른 나라의 경험에 의하면 응축분리탑동체를 세워놓고 100t기중기로 내부랭각관체를 20여m정도 들어올린 다음 그것을 동체안에 넣게 되여있었다. 하지만 제관작업장에는 내부랭각관체를 들어올릴만 한 기중기도 없었고 천정까지의 높이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내부랭각관체를 응축분리탑동체에 조립할것인가?

이것은 직장의 범위를 벗어나 기업소적인 문제로 제기되였다. 누구나 그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썼고 토의를 거듭하면서 방도를 탐구하였다. 하지만 신통한 방안은 없었다. 날자는 하루하루 가는데 뾰족한 방도를 찾지 못하여 모두가 안타까와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제관2작업반장 심명진동무가 제관3작업반장 박성철동무를 찾아왔다.

《내부랭각관체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미끄럼식으로 응축분리탑의 동체에 넣는것이 어떻겠소?》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종이에 그려가며 설명하였다. 로력영웅인 박성철동무의 얼굴이 점차 밝아졌다. 그럴듯 한 생각이였던것이다.

그 착상은 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에게는 물론 도의 책임일군들에게까지 제기되였으며 절대적인 공감을 받았다.

심명진동무가 내놓은 방법으로 응축분리탑의 동체에 내부랭각관체를 조립하는 날이였다. 제관작업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물론 도의 일군들도 모여왔다.

《신심을 가지라구. 동무들이야 특대형설비인 1만t프레스도 자체의 힘으로 척척 조립한 사람들이 아닌가. 룡성의 본때를 다시금 보여주자구.》

작업을 지휘하기 위해 기발을 들고 나서는 심명진동무에게 도의 책임일군이 한 말이였다.

이윽고 만사람의 관심속에 조립전투가 진행되였다. 내부랭각관체가 자기의 중심을 맞추며 응축분리탑동체안으로 1㎝, 또 1㎝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참으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순간이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

마침내 내부랭각관체가 응축분리탑동체안에 완전히 조립되였다. 순간 《성공이다!》하는 웨침들이 제관작업장에 메아리쳤다.

성공, 그것도 단번성공이였다.

참으로 그것은 불가능을 모르는 룡성의 기질, 당이 바라고 혁명이 요구하는것이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야마는 룡성의 본때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진두에서 이끄시는 강성대국건설투쟁에서 다시금 높이 떨쳐지는 자랑스러운 화폭이였다.

축하의 꽃보라가 뿌려지고 향기로운 꽃송이들이 기적창조자들의 가슴에 안겨졌다.

하지만 룡성의 사나이들은 위훈의 자욱을 뒤돌아보며 만족해하지만 않았다. 그들은 가야 할 앞길을 내다보며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신들메를 조였다.

만족과 답보를 모르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일하기 좋아하고 창조하기 좋아하는 룡성사람들의 전통적인 투쟁기풍인것이다.

수소정제탑제작, 그처럼 어렵다고 하는 그 과업도 룡성의 로동계급은 웃으며 스스로 받아안았다.

직장장 정수철동무가 수소정제탑제작시험과 관련한 과업을 받았을 때 생각은 깊었다. 얼핏 보기에는 간단한것 같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렵고 까다로운 설비였던것이다. 오랜 제관공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 입에서는 《간단치 않은 과업이구나.》하는 말이 저절로 새여나왔다.

높은 과학기술적담보를 요구하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 세계적으로도 몇개 나라만이 만들고있다는 설비였지만 룡성사람들은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론하지 않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결심하시면 우리는 기어이 해내야 하고 만들어도 최상의 수준에서, 최단기간내에 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만이 그들의 심장속에서 불길처럼 활활 타올랐다.

수소정제탑동체에 경판을 용접하여 붙이는것도 힘겨운 전투였다. 하지만 장기선, 리호인, 원성철, 리영식동무를 비롯한 로동자들은 동체안에 뛰여들어 용접불꽃을 쉬임없이 날리였다. 낮에 밤을 이어 벌어지는 전투로 힘들고 피곤하였지만 그들은 순간도 전투장을 떠나지 않았다.

총포탄이 비발치는 전화의 그날에만 영웅이 있었던가. 비록 총포성은 울리지 않아도 조선의 결심, 우리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할수만 있다면 웃으며 불속에라도 뛰여드는 그런 높은 정신력을 지닌 룡성사람들의 투쟁을 어찌 영웅적이라 아니할수 있으랴.

온 세계가 깜짝 놀라게 할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면서도 룡성사람들은 자기들의 위훈에 대하여 별로 자랑하지 않았다. 허리띠를 조여가며 집채같은 철구조물을 다루고 대형설비들을 척척 만들어내면서도 자기들을 위한 그 무엇을 달라고 나라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일감을 달라!

바로 이것이 룡성로동계급이 높이 추켜든 붉은기에 새겨진 신념의 글발이다.

응축분리탑, 수소정제탑을 비롯한 흥남가스화대상설비들을 건설장으로 떠나보낼 때마다 룡성사람들은 모두 떨쳐나섰다. 멀어져가는 설비들을 뜨거운 눈물속에 바래울 때 그들의 가슴속에 차넘친것은 조국의 만년재부를 또 하나 마련했다는 긍지와 자부만이 아니였다.

《품들여 키운 딸을 시집보낼 때보다 더한 심정입니다.》

평범한 로동자인 정선복녀성의 이 말을 무심히 들을수 없다.

우리 조국이 손꼽아 기다리는 흥남가스화대상설비들에 룡성의 로동계급이 얼마나 뜨거운 정과 넋을 바쳐왔는가를 소박한 그 말이 다 전해주고있다.

얼마전 흥남땅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기들이 만든 대형설비들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는 소식은 온 룡성땅에 격정의 파도를 일으켰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룡성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더욱 세찬 비약의 불길을 지펴주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든 그들은 심장의 목소리를 합쳐 웨친다.

—조국이여, 그대에게는 룡성이 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남조선괴뢰군은 미제침략군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을 비호두둔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북측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남측에 통지문 발송

【평양 3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놈들이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분계선대밑까지 기여들어 무모한 군사적도발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은 북남관리구역 100m이내로 진입할 경우 상대측에 사전통보하게 된 북남군부사이의 쌍방합의는 안중에도 없이 매일같이 군사분계선 20m까지 들어와 인원, 차량에 대한 감시활동을 진행하는가 하면 지어 계집년들까지 데리고 들어와 사진을 찍거나 술을 마시고는 우리측 초소쪽을 향해 술병을 내던지는 등 우리 군인들을 자극하는 도발행위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3월 20일 18시 20분 남측에 다음과 같은 통지문을 내보내였다.

최근 남측의 묵인하에 동,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미제침략군놈들의 도발행위가 급증하고있다.

3월 1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만도 연 100여명의 미제침략군놈들이 무려 50여차에 걸쳐 아무러한 사전통보도 없이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분계선 100m안에 들어와 돌아치며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도발행위는 쌍방군사적합의에 대한 로골적인 파기행위이며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그러나 남측은 미제침략군놈들의 무모한 도발행위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비호조장시키고있다.

우리측은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때를 같이하여 감행되고있는 미제침략군의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는 물론 그것을 묵인조장시키고있는 남측의 처사에 대하여 더이상 용납하지 않게 될것임을 미리 통지한다.

만약 남측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제침략군놈들이 제멋대로 군사분계선가까이에 나와 돌아치게 한다면 인명피해를 포함한 초래될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새 학년도를 맞으며 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경암제1중학교 물리강좌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훌륭하게 일떠선 대규모과일생산기지

외국인들과 총련일군들이 찬양

—농업과학원 축산학연구소에서 사업에서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찍음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학연구

대규모의 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참관한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대표단 단장 한누 하르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전경은 볼수록 감탄을 자아낸다.

인민들이 사회주의만복을 누리게 하시려던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념원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참관을 통하여 그것을 확신하였다.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 린 씨노디움은 이처럼 희한한 과수원은 처음 본다,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잘 알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 김경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또 하나의 만년대계의 재부이다.

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농장을 일떠세웠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조국에서만 창조될수 있는 기적이다.

참관을 통하여 강성대국에서 살게 될 조국인민들의 행복에 넘친 모습을 그려보았다.

총련 에히메현본부 위원장 박순호는 조국에서는 과수업발전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훌륭하게 일떠선 대규모의 과일생산기지이다.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로고가 어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절세위인의 은정을 길이 전할것이다.

조국의 벅찬 현실을 목격하고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신있게 내짚은 첫걸음

원산유리병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투입!》

힘있게 손을 내리그으며 지배인이 이렇게 웨치자 로가 무섭게 용을 썼다.

원료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긴장한 눈길로 로안을 들여다보던 사람들이 일시에 환성을 터쳤다.

《성공이다!》

온 공장이 환희로 끓었다.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새로 건설한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전력소비가 낮은 유리용해로가 성과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것이였다.

인민생활향상의 해인 올해 혁신의 보폭을 크게 내짚은 기쁨으로 그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은 한껏 부풀어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기풍입니다.》

지난 1월초 어느날 밤이 깊어가고있었지만 박원근, 한영석, 김영남동무를 비롯한 공장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열띤 토론은 끝날줄 몰랐다.

올해공동사설을 받아안고 지난 시기에 비해 비할바없이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세운 그들이였다. 그 목표를 실현하자면 결정적으로 새 유리용해로를 건설하여야 하였다.

《지난 기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온 공장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잊지 않는다면 새로운 로건설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심장을 높뛰게 하는 지배인 박원근동무의 신심에 넘친 목소리였다.

공장지배인으로 수십년을 일해오면서 로력영웅이 된 그는 오늘도 왕성한 투지와 높은 실력, 완강한 전개력으로 공장을 이끌어 종업원들의 존경을 받고있었다.

지난 수십년간 공장이 맡겨진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면서 자체의 힘으로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으로부터 현대적인 공장으로 전변된 그 밑바탕에는 그의 불같은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크게 깃들어있었다. 특히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최근 몇해동안에만도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유리제품의 가지수도 수십종이나 늘이였다.

박원근동무의 마음속에는 공장이 몸의 한부분과 같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 종업원들의 심정도 다를바 없었다. 정과 사랑이 스민 기대, 창조와 혁신의 동음이 높은 정다운 일터를 떠난 자기들의 생활을 순간도 생각해본적이 없는 그들이였다.

지배인도 종업원들도 모두가 공장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있었다. 오늘의 대고조전투에서 그 전통을 더욱 빛내이려는것은 그들의 하나같은 지향이고 의지였다.

로건설전투장은 시작부터 낮에 밤을 이어 끓어번졌다. 하루빨리 새로운 로를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각종 유리제품을 더 많이, 더 좋게 만들어보내주려는 하나의 생각으로 일손을 다그치는 종업원들을 볼 때마다 박원근동무는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늘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우는 기사장 김영남동무, 필요한 자재가 미리미리 보장되여야 기일을 앞당길수 있다고 하면서 땀을 씻을새 없이 바삐 뛰여다니는 부원 양영만동무…

남달리 눈길을 끄는것은 시공을 맡아보는 리봉구동무의 모습이였다. 오래동안 직장장사업을 하다가 년로보장을 받았지만 다시 일터로 달려나온 로당원, 대고조진군이 벌어지는 때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일에 자기의 마음도 바치고싶다며 매일과 같이 현장에서 땀흘리는 그의 모습은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팔을 걷어올리고 축조작업을 하고있는 리봉구동무에게 박원근동무는 쉬염쉬염 일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나이많은 지배인동무가 건강에 관심을 돌려야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땀을 흠뻑 흘리고나면 마음이 거뜬해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하루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면 절로 흐뭇해지구요.》

얼굴 가득 웃음짓는 그를 보느라니 박원근동무도 절로 즐거워졌다. 하면서도 가슴뜨겁게 차오르는 생각을 어쩔수 없었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가! 자나깨나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불같이 살며 일하는 이들이 있어 새 유리용해로건설은 문제없다.)

열정과 헌신의 날과 날들이 흘렀다. 마침내 유리용해로가 일떠서고 이처럼 장쾌한 동음을 울리는 날을 맞이하게 된것이였다. …

《공장의 연혁사에 혁신의 자욱을 또 한번 새겼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신심과 락관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합시다.》

웨치다싶이 하는 지배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화답소리가 공장구내에 메아리쳤다.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으로 강성대국의 래일을 향하여 줄달음치려는 억센 신념과 의지가 그속에 비껴있었다.

본사기자

혈육의 뜨거운 정으로

평천구역 새마을1동 66인민반 리순옥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내세워주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평양역을 떠난 렬차는 차츰 속력을 내기 시작하였다. 리순옥동무는 자기를 바래워주는 남편의 모습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그의 귀전에는 남편이 하던 말이 다시 울려왔다.

《형님에게 내 인사도 전해주오.》

그 형님이란 다름아닌 신의주시에 사는 영예군인 장원영동무였다.

리순옥동무의 눈앞에는 10여년전 장원영동무를 처음으로 알게 되던 봄날이 떠올랐다.

그날은 일요일이였다. 당시 신의주시에서 살면서 중학교에서 공부하고있던 순옥이는 어머니와 함께 신의주시 하단리에 갔다가 한 영예군인과 그의 안해를 만나게 되였다. 그 영예군인이 바로 장원영동무였다.

그날 영예군인을 만나보고 집에 돌아온 순옥이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기였다.

피흘려 조국을 지킨 어제날의 병사,

제대군관의 딸인 그의 눈앞에는 어려서부터 수많이 보아온 병사들의 미더운 모습이 떠올랐다.

총대를 틀어잡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국보위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필요하다면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들,

병사들이 있어 너희들이 마음껏 공부하며 자랄수 있는것이라고 늘 외우던 부모의 말이 그의 가슴을 새삼스레 파고들었다.

(조국을 위해, 우리를 위해 청춘을 바친 그 영예군인을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일가.)

이렇게 곱씹던 순옥이는 영예군인의 건강이 하루빨리 완쾌될수 있게 힘껏 도와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날부터 순옥이의 마음은 언제나 영예군인에게 가있었다. 색다른 음식이 생겨도, 좋은 책이 생겨도 그는 그것을 들고 영예군인에게로 달려갔다.

한번 또 한번, 영예군인을 위한 순옥이의 걸음은 계속 이어졌다. 부모들과 함께 간적도 있었지만 혼자서 영예군인을 찾아간적이 더 많았다.

그의 집에서 영예군인의 집까지는 10리길이 더 되였다. 그런 길을 매일같이 오고갔지만 그는 힘든줄 몰랐다. 우리 순옥이가 또 왔다고 반겨주며 조국보위나날의 이야기를 열정에 넘쳐 들려주는 영예군인의 밝고 명랑한 모습은 그대로 순옥이의 기쁨이였다.

혈육의 정이 오가는 속에 그와 영예군인가정은 한식솔이 되였다.

후날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리순옥동무는 영예군인과 그의 가정을 위해 성의를 다했다.

몇해전 그가 평양으로 이사하게 되였을 때였다. 몹시 서운해하는 영예군인의 손을 다정히 잡으며 리순옥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마음은 언제나 영예군인동지와 함께 있을것입니다.》

그 말은 진정이였다. 리순옥동무는 평양에 온 후에도 장원영동무의 집을 찾아 자주 렬차에 오르군 하였다. 안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남편인 인민보안원 조성진동무 역시 영예군인의 건강회복에 좋은 여러가지 보약들과 영양식품들을 마련하는데 지성을 합치였다.

리순옥동무가 자기와 남편의 진정이 담긴 보약들과 영양식품, 생활용품들을 가지고 찾아올 때마다 장원영동무와 그의 안해는 눈굽을 적시군 하였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곁에 있으면서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혈육의 정을 기울이는 리순옥동무를 보며 그들은 고마움을 금치 못하였고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 세대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뜨거운 인정미에 깊이 머리를 숙이였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것을 의무로, 량심으로 간주하고있는 리순옥동무는 지난해 신의주시에서 큰물이 났을 때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사업에 앞장섰으며 장원영동무의 가정에도 많은 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

렬차는 나는듯이 달리였지만 리순옥동무에게는 굼뜬것처럼 생각되였다. 한시바삐 영예군인을 만나보고싶은 마음이 렬차를 앞서 달리였다.

《또 우리 집부터 들렸겠구만.》

그날도 장원영동무는 자기 집에 나타난 리순옥동무를 반겨맞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신의주에 올 때마다 자기 부모가 사는 집이 아니라 먼저 영예군인집부터 찾는 리순옥동무였던것이다.

《내가 뭐 남의 집에 왔는가요?》

그러는 리순옥동무를 보며 영예군인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그래, 우린 서로 남이 아니지. 사람들마다 서로 도우며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모두가 한식솔이지.)

본사기자 김진욱

한 기업가의 삶을 애국의 길에서 빛내주시여

전 남조선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믿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따뜻이 품어주는 한없이 넓고 자애로운 품이다. 사상이나 리념, 주의주장보다 민족을 더 귀중히 여기시며 민족의 리익을 위한데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시는 그이의 숭고한 애국의 뜻에는 매혹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머리를 수그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남조선과 해외의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의 뜻을 따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나섰던가. 남조선의 현대그룹 명예회장이였던 정주영선생도 그들중의 한 사람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옵고 참된 애국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달은 정주영선생은 장군님을 우리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로 우러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성업에 나섬으로써 생의 말년을 빛내일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

일찌기 《기업으로 애국한다.》는 나름대로의 지조를 품은 그의 인생은 기업과 떼여놓고 볼수 없다. 그는 자기 인생의 거의 전부를 기업에 바치였다. 나중에는 정치개혁을 주장하며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해보았다. 하지만 결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맛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그가 생의 말년에 《참다운 애국은 통일》이라는 신념을 품고 극적인 인생전환을 하게 된것이다.

《문민》독재사회에서 집권세력과 뜻이 다르다는 리유로 기업활동에서 각종 저애를 받고 지어 심한 정치적압력까지 받던 정주영선생은 마음이 저절로 오래전에 떠나온 북으로 향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가 드디여 용단을 내려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한것은 그의 가슴속에 묻혀있던 애국의 씨앗을 싹틔워준 계기가 되였다. 그는 그립던 고향 통천에도 가보고 때로는 평양랭면을 들면서 그리고 어린시절 추억이 깃든 금강산도 돌아보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분렬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품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정주영선생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 접하게 되였다. 민족적량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지어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대자본가, 군장성들과도 단합할것이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로작을 통해 받아안은 그는 격동을 금할수 없었다.

(남과 북이 사상과 제도가 엄연히 다르고 더우기 정치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여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장군님께서 그런 담대한 정치적의지를 천명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애국자이신가!)

조국통일을 위한 그이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은 정주영선생에게 분렬된 우리 조국에서 참된 애국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진리로 새겨주었다. 드디여 그의 가슴속에서는 애국의 불씨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이제라도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에 헌신하는 애국적인 기업가가 되자.)

이렇게 결심다진 그는 자기 기업의 전략을 우리 공화국과의 협력교류로 내세우고 앞장에서 그 실현을 위한 걸음을 내짚었다.

반통일세력들의 악랄한 비방과 방해책동을 물리치며 결단코 통일애국의 길에 나선 그의 마음속진정을 누구보다 귀중히 여기신분은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주체87(1998)년 10월 30일 자정이 가까와오는 깊은 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하고있던 정주영선생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장정의 로고도 푸실사이없이 정주영선생과 그 일행이 묵고있던 숙소에 몸소 찾아오신 이 사실도 충격적이였지만 그때에 있은 담화는 더더욱 그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주영선생을 **《명예회장선생》**으로 정답게 불러주시며 체류기간 불편한 점들은 없었는가고, 선생이 다리를 불편하게 쓰는것 같은데 어떻게 되여 그렇게 되였는가고 따뜻이 물어도 주시였다. 그리고 자신께서는 정주영선생이 배짱이 세고 한번 하자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내미는 성미를 가지고있는분으로 알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정주영선생은 여직껏 그 누구에게서 받아본적 없는 따뜻한 고무와 인정에 가슴이 후더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겸허하게도 정주영선생을 가운데 세우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으며 우리 민족이 잘되고 잘살게 하자는 사람들과는 그 누구와도 언제나 손잡고나갈것이라고 하시며 북남사이의 협력교류와 관련한 《현대》의 사업방향을 적극 지지해주시였다.

그 격정을 묵새겨둘수 없어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바래드리고 자기방에 들어서면서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며 《과시 장군이시야.》라고 흥분된 심정을 터치였다. 그러면서 장군님을 만나뵈오니 이제는 통일이 다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웨치듯이 말하였다. 정주영선생의 이 말에 그의 수행원들은 《우리 회장님은 오늘 〈하느님〉을 만났다.》고 하며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다고 한다.

정주영선생일행이 남조선으로 돌아가던 날 수백명의 기자들이 판문점에까지 나와 붐비였다. 기자들과 회견한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던 일들을 긍지에 넘쳐 되새겨보며 자기가 체험한 그이의 위인적풍모에 대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남조선의 한 기자가 《북에 갔다오더니 변한것 아닌가? 왜 자꾸 장군님, 장군님 하는가?》고 물었다.

이때 정주영선생은 《내가 세상을 다니며 장군이란 장군은 다 만나봤어도 진짜장군은 **김정일**장군님이 처음이다.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부르는데 나도 장군님이라고 부른다.》고 쐐주듯이 면박을 주었다.

정주영선생은 정치인은 물론 《대통령》이라고 해도 칭찬하는 말을 해본적이 없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였다. 이런 그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고 그이께 완전히 매혹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자자구구 새길수록 정주영선생의 눈앞에는 통일의 아침이 보이는것만 같았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싶은 열정이 샘솟았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량없는 믿음과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금강산관광개발을 다그쳐 그해 11월 동해의 푸른 물에 첫 관광선을 띄움으로써 북남경제협력의 물고를 터놓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후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한 정주영선생을 또다시 만나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정주영선생은 민족이 화해하는 길을 열어놓은 개척자와 다름없다고, 그 공적은 앞으로 력사에 큰 장을 차지하게 될것이라고 분에 넘치는 평가와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는 그의 주름잡힌 얼굴에는 자그마한 애국의 싹도 귀중히 여기시며 그것을 큰 나무로 키워주시는 운명의 태양이신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정주영선생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은 이뿐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기념촬영시에는 정주영선생이 불편해하니 앉아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고 또 어느때에는 상한 관절때문에 불편해하는데 치료를 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하시였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앉아있으라고 하시며 산삼과 수예품도 보내주시였다. 혈육의 정을 초월하는 이처럼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정주영선생이였기에 그는 반통일분자들의 압력과 회유에도 굴함없이 통일애국의 길을 꿋꿋이 걸을수 있었다.

주체90(2001)년 3월 21일 그가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애석함을 금치 못하시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길에 남긴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시였고 민족분렬사에 류례없는 조의대표단과 함께 자신의 명의로 된 조전과 화환까지 보내주시였다. 어찌 그뿐이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보통강기슭에 그의 애국심이 깃든 체육관이 일떠섰을 때에는 거기에 그의 이름과 그앞에 《류경》이라는 단어를 붙여 의의가 있게 《류경정주영체육관》이라고 명명하도록 해주시여 그가 민족을 위한 길에서 영생하는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시였다. 생존시나 운명했을 때나 정주영선생에게 변함없이 베풀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 고결한 의리는 영원한 전설로 겨레의 기억속에 남아있을것이다.

오늘도 정주영선생의 삶은 그가 자본가이건 군장성이건, 과거에는 어떤 길을 걸어왔건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여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안아주시고 통일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이야말로 온 겨레가 운명을 맡기고 영원히 안겨살 위대한 태양의 품이라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향 미

남녘겨레들 칭송

절세위인의 애국헌신의 로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해 끊임없는 애국헌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르며 남녘겨레는 끝없는 격정을 터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진두에 서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가꾸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정의의 길, 애국애족의 길을 걷고계시는 정열의 화신》,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북의 곳곳에서 선군혁명시대를 상징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있는것은 혁명적대고조진군의 최전방에서 무한대한 정력과 애국헌신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일대 전환을 안아오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특출한 정치실력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라고 격찬하였다.

서울의 한 재야인사는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뛰여난 령도,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북을 강성대국으로 건설해나가고계신다, 그분의 령도로 북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령마루에 올라 세계앞에 그 대문을 활짝 열 날을 앞당겨오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한민족복지재단》 김강련은 자기의 글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의 기치드높이 전연의 고지들과 전국의 공장, 농촌들을 쉬임없이 찾고계신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고 하시며 선군길을 이어가시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말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다고 피력하였다.

한재야인사는 **김정일**령수님께서는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생사기로에 놓였던 사회주의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태양회 회원 김유학은 민중을 위하시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이북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발전소들과 현대적인 공장, 대기념비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으며 최첨단과학기술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이 일어나고있다고 격찬하였고 서울 종로구에 사는 한 기업가는 지금 북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초강도강행군길을 따라 강성대국의 새시대를 펼치기 위한 대진군을 힘차게 벌리고있다고 말하였다.

남조선의 주요언론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현지지도소식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는 그대로 열정의 불폭탄이 되여 북주민들이 대고조, 대비약을 위한 전투에로 떨쳐나서게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 법학교수는 토론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경제강국건설에 떨쳐나선 북녘민중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기 위한 이북군민의 총진군으로 이 땅에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지진피해지역 동포들에 대한 총련의 적극적인 지원활동

일본 도호꾸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지난 11일에 일어난 강한 지진으로 동포들이 피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총련이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고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긴급대책위원회(중앙대책위원회)를 즉시 내오고 피해지역 총련본부들과의 련계밑에 동포들의 안부와 현지정형을 료해하면서 지진피해를 가시고 동포들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필요한 대책들을 취하였다.

중앙대책위원회는 재난당한 총련동포들과 민단, 미조직동포들, 파손된 조선학교들에 대한 구원사업을 전조직, 전동포적으로 벌릴것을 결정하고 피해지역에 구호물자를 보내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중앙대책위원회 성원들이 지진피해를 입은 이바라기, 미야기, 이와테, 후꾸시마현의 각 학교와 동포들의 집을 찾아 동포구원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리고있다.

16일과 17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과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대표들은 재일동포들과 일본시민들이 피난해있는 후꾸시마조선초중급학교와 도호꾸조선초중급학교를 찾아가 많은 의약품과 물자들을 넘겨주었다.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일군들도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벌렸다.

16일 총련 혹가이도본부관하 각 지부의 대표들이 이와데현본부에 지원물자를 전달하였다.

17일 총련 효고현본부에서 파견된 지원대는 동포들에 의해 마련된 100만￥의 지원금과 연료, 의약품 등을 가지고 미야기현 대책위원회가 자리잡고있는 도호꾸조선초중급학교에 갔다.

이곳 대책위원회로는 현내 동포들과 각지에서 보내는 지원물자들이 계속 도착하고있다.

한편 피해지역 동포들을 위한 《동일본대지재피해동포구원모금》에 광범한 동포들이 참가할데 대한 총련중앙의 호소에 따라 각지 총련기관과 단체들에서는 모금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뜨거운 동포애적인 지원에 힘과 용기를 얻은 피해지역 동포들은 하루빨리 재해를 이겨내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서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끊임없는 전쟁연습이 시사하는 위험성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긴장상태는 전적으로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빚어낸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침략적인 《독수리》합동군사연습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의 전략적종심, 중요거점들을 기습타격하는 방법으로 전면전쟁을 도발하고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핵선제공격연습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감행하는 북침전쟁연습책동으로 말미암아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전쟁발발의 위험은 시시각각으로 커가고있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도전하여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련이어 감행함으로써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는 남조선당국의 범죄적인 망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력사적으로 볼 때 남조선통치배들은 미국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도발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북침전쟁연습이 지금처럼 매일같이 벌어진적은 없었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은 120여차에 달하며 괴뢰군단독의 주요군사훈련은 무려 980여차에 이른다. 집권한 첫날부터 온갖 형형색색의 북침전쟁연습을 수없이 벌려놓은 남조선호전광들은 훈련지역을 점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일대와 쌍방간의 군사적긴장이 첨예한 서해해상일대에로 옮기고있다.

남조선에서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이처럼 끊임없이 벌어지고 그것이 날로 더욱 위험하고 도발적인 성격을 띠고있는 형편에서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하고 긴장상태가 날로 첨예화될수밖에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전쟁연습책동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있는것은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에로 향한 시대적흐름을 가로막고 기어이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반민족적흉계의 발로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올해에도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긴장완화와 평화를 이룩하고 통일과 번영에로 나아갈데 대한 우리의 제안은 해내외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남조선 각계는 구태의연하게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남조선집권세력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궁지에 몰린 남조선당국은 대화분위기를 파괴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상태에 못박아놓을 심산으로 외세와 함께 북침전쟁연습책동에 더욱 매달리고있는것이다.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반목과 대결, 전쟁을 추구하는 남조선보수패당의 정체는 그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불장난소동을 년중 지속적으로 벌려놓으려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의 전쟁광증은 이미 위험계선을 넘어섰다.

조성된 사태를 통해 세계는 조선반도에서 누가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고 누가 대결과 전쟁을 기도하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알게 되였다. 민족의 지향과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끊임없는 전쟁연습책동으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남조선당국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전쟁불장난소동으로부터 차례질것은 수치스러운 참패와 죽음밖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심 철 영

외세와의 군사적야합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중지를 요구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미군문제팀장》 유영재가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중지를 요구하여 16일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리는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내용에 있어서 북침을 노린 공격연습이라고 단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세력들이 《년례적인 방어연습》이라고 떠들어대는것은 이번 연습의 침략적성격을 가리우기 위한 술책이라고 론평은 까밝혔다.

론평은 최근 전쟁연습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 모처럼 조성되였던 대화국면이 막히고 군사적긴장만 더욱 높아가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무모한 합동군사연습은 당장 중지되여야 한다고 론평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호전광들 지상협동훈련 획책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괴뢰군 제6사단이 21일부터 25일까지 남조선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운천리일대에서 2011년 전반기 지상협동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호전광들은 땅크와 자동차, 병력의 기동과 주야간 공포탄사격으로 전쟁열을 고취하려 하고있다.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발광적인 군사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검은구름이 날로 무겁게 드리우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죄악으로 얼룩진 대결광신자의 행적

남조선인민들은 북남관계의 길목을 타고앉아 온갖 반통일망동을 일삼는 현인택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가 결코 개선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그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극악한 대결광신자인 현인택을 당장 통일부 장관자리에서 쫓아내라고 일치하게 주장하고있다. 그럴수밖에 없다.

남조선에서 통일부라는것이 생겨 지금까지 수십번이나 장관이 바뀌였다고 하지만 현인택과 같은 대결광신자는 찾아볼수 없다. 현인택은 통일이란 말만 들어도 낯을 찡그리는 보기 드문 반통일분자이다.

그가 장관감투를 뒤집어쓰자마자 이전 《정권》시기의 인물들을 모조리 내쫓고 극우보수분자들을 끌어들인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현 《정권》이 정식 출현하기 전부터 통일부를 없애버리려고 날뛰다가 실패하자 그 권능과 기구를 대폭 축소한자이고보면 이쯤한것은 별로 놀라운것이 아니다. 현인택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리행할 의무가 없다.》고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북남선언들을 정면으로 부정해나섰으며 통일부안에서 선언이라는 말조차 입밖에 내지 못하게 하였다.

현인택이 북남선언들을 얼마나 악의로 대하고있는가 하는것은 명색이 통일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발표기념행사에 단 한번도 머리를 들이밀지 않은것은 물론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이 우리 공화국의 단체들과 6.15공동선언발표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것마저 악랄하게 가로막은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특히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날에는 그와 관련한 말이 아니라 거꾸로 도발적인 《급변사태》설을 입에 올려 뿌리깊은 대결광증을 다시한번 드러내보였다.

현인택의 반통일죄행을 론할때 그가 《비핵, 개방, 3000》을 조작하고 그 무슨 《원칙고수》의 간판밑에 그것을 끈덕지게 고집해온 사실을 빼놓을수 없다. 역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문제의 해결없이 남북관계의 발전이 어렵다.》고 떠들며 《핵포기》를 북남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으며 《개방, 개혁》나발을 불어대며 《북이 변해야 한다.》는 악담을 늘어놓았다. 얼마전에도 현인택은 그 무슨 기념식장에 나타나 저들이 지난 3년간 《비핵, 개방, 3000》에 기초한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일관하게 추진》해왔다느니, 《력사를 붙잡고 북을 변화》시켜야 한다느니 하며 대결정책을 버리지 않을 흉심을 다시한번 드러냈다.

현인택은 북남대화와 협력, 교류를 사사건건 가로막아나섰다. 그 무슨 《대북사업4원칙》이라는것을 내흔들며 온 민족이 기대하고 관심하는 금강산관광을 망쳐놓은것도 현인택이며 함선침몰사건을 코에 걸고 간신히 이어져오던 민간협력사업마저 《안전보장》의 명목밑에 중단시킨것도 현인택이다.

최근에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대해 《전술적변화》니, 《진정성결여》니 하고 헐뜯다 못해 모처럼 마련된 대화분위기를 파탄시켰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역도가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며 반공화국심리모략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사실이다. 현인택은 고려대학교에서 교수의 탈을 쓰고있을 때 우리 공화국에 대고 《밝은 하늘아래에서 같이 살수 없다.》는 악담을 늘어놓은바 있다. 이런자이기에 장관자리에 올라앉아 대결광신자의 기질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역도는 그 무슨 《안보교육》의 미명하에 초, 중학교들을 찾아다니며 북남대결의식을 고취하다 못해 동족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해와 악의에 찬 비난으로 엮어진 《통일교육지침서》라는것을 만들어 모든 학교들과 단체들에 내리먹이도록 하였다. 지어 어린이들에게까지 우리를 헐뜯는 불순한 내용의 교재와 만화책들을 배포하도록 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보는것처럼 통일부를 타고앉아 현인택역도가 한것이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막대한 피해를 준 반민족적, 반통일적망동뿐이다.

시대착오적인 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현인택은 지금 여론의 규탄대상이 되고 집권세력내부에서조차 버림을 받고있다.

바빠난 현인택은 자기의 조작품인 《비핵, 개방, 3000》을 극구 합리화하는 한편 북남관계파탄의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려고 파렴치한 수작을 늘어놓고있다.

하지만 그런 놀음은 소용이 없다.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민족은 반통일역적 현인택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복 은 희

외세의존책동의 참담한 후과

얼마전 미국무장관은 어느 한 회의에서 남조선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거들면서 그것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유무역의 모범》으로 된다고 극구 찬양하였다. 그가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을 이처럼 환영한 리유가 있다. 그것은 남조선시장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완전히 개방시킬수 있는 법적틀거리를 마련했기때문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말 남조선과 미국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협상이 있었다. 나흘간에 걸친 이 협상에서 남조선당국은 《자유무역협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데 대한 미국의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물었다. 이 협정은 이미 2007년 6월에 체결되였지만 미국회가 협정의 일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비준이 되지 않고 외면당하고있었다. 하지만 추가협상이 진행됨으로써 미국회비준의 장애가 없어지게 되였다.

《자유무역협정》추가협상이 타결되자마자 미국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남조선미국 《동맹의 승리》니 뭐니 하고 폐재를 올렸다. 미국정계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환성이 터져나왔다. 이에 이어 이번에 미국무장관이 또다시 남조선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찬양해나선것이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남조선 각계에서 규탄받아온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리익을 더욱 철저히 옹호하는것으로 되여있다는것을 반증해주고있다.

2007년에 체결된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은 사실 말이 《자유무역협정》이지 미국에는 막대한 리익을 주고 남조선에는 의무만 잔뜩 들씌운 불평등한것이였다. 오죽했으면 남조선 각계가 《자유무역이 아니라 미국의 리익을 최대로 늘여주는 강요무역》이라고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겠는가. 하지만 식민지하수인의 리익을 희생하여 배를 불리우려는 미국의 탐욕에는 끝이 없었다.

처음 이 협정이 체결되였을 때에는 그나마 거기에 미국에 수출되는 남조선자동차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며 남조선이 수입하는 미국자동차는 일부 제한하기로 한 부분이 있었다. 하수인의 목줄을 사정없이 조여 최대한의 리득을 빨아내려는 미국에 이것이 마음에 들리 없었다. 더우기 파국적인 금융위기속에 3대자동차회사로 손꼽히는 《제네랄 모터스》와 《크라이슬러》마저 정부의 재정지원에 매달리게 되자 미국은 남조선이 보잘것없는 무역상대이긴 하지만 그를 통해서도 조금이나마 리득을 볼 심산으로 남조선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뜯어고치기로 하였다. 쌍방이 합의한 협정을 변경시키는것은 국제법적규범이나 관례상 보기 드문 현상으로서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략탈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의 오만성과 파렴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였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친미적인 보수세력이 집권한것을 협정수정의 기회로 삼고 달라붙었다. 미국은 2009년초부터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슬슬 내돌리면서 추가협상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조선당국을 은근히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에서 항의가 일어나자 상전과 여론사이에 끼워 궁지에 몰린 남조선집권세력은 《추가협상은 없다.》고 나자빠져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하수인의 발버둥질에 미국은 꿈쩍도 안하였다. 2009년 3월 미국은 추가협상을 해야 한다는 립장을 로골적으로 드러냈고 여러차례의 회담을 통하여 자동차무역분야에서 저들의 요구를 받아물것을 남조선당국에 무작정 강박하였다. 지어 시한부까지 정해놓고 추가협상에서 양보하라고 로골적인 압력을 가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미국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남조선당국자에게 추가협상요구를 들이댔다.

미국의 눈치만을 살피던 남조선당국은 상전의 압력이 강해지자 더 버틸념을 못하고 굴복하고말았다. 하여 지난해부터 남조선과 미국사이에 《자유무역협정》추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여러차례에 걸친 추가협상끝에 지난해 12월 3일 남조선당국은 끝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동차무역관련부분을 수정하고 지난 2월 그에 맞도장을 찍었다.

수정된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에 의하면 미국에 수출되는 남조선자동차들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는 앞으로 몇년동안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그것이 장차 철폐된다 해도 미국은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의 시각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여 다시 관세를 부과하게 되여있다. 사실상 이것은 남조선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영영 철폐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속심을 반영한것이다. 그와 반면에 남조선이 수입하는 미국자동차들에 대해서는 협정발표즉시 관세를 절반낮추고 4년후에는 완전철폐하기로 되여있다. 또한 수입되는 미국자동차들중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대수가 대폭 늘어났다. 결국 미국의 자동차시장문턱은 조금도 낮아지지 않았지만 남조선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였다.

이 협상결과에 대해 남조선각계는 일방적인 《보호무역협정》, 《굴욕적인 매국협상》이라고 비난과 울분을 금치 못하였다. 그런데도 수치도 모르는 남조선집권세력은 《자유무역협정》추가협상이 타결되자 얼굴을 붉힐 대신 《동맹관계의 도약》이니, 《기회의 장》이니 하는 낯뜨거운 소리들만 늘어놓았다. 바로 여기에서 친미사대에 환장하여 인민들의 리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상전의 비위를 맞추고 그에 의거하여 권력을 유지해가는 남조선집권세력의 추악한 정체가 다시금 드러났다.

결국 미국은 친미주구들의 사대매국적기질과 그것이 저들에게 가져다주는 리익에 만족하여 《모범》이니, 《승리》이니 하고 환성을 지른것이다.

미국이 환성을 지를 때 남조선인민들은 값비싼 피눈물을 흘리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의 친미사대매국행위가 빚어내는 후과는 이처럼 크다.

본사기자 은 정 철

단결은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의 근본담보

오늘 우리 시대는 력사적전환기에 놓여있다. 몇해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하여 서방세계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으며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있다. 국제무대에서 서방세력이 독판치기를 하던 때는 지나갔다. 중요한 국제정치 및 경제문제들이 여러 발전도상나라들이 망라되여있는 20개국그루빠에서 론의되고있는 현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세계의 일극화를 실현하려던 미제의 꿈은 망상으로 되고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지배주의와 패권주의가 없는 새로운 세계, 자주적인 새 세계를 창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 간섭과 압력을 끝장내고 자주성에 기초한 공정한 국제질서를 세우며 침략과 전쟁을 없애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단결하여야 한다.》

자주적인 새 세계는 몇몇 개별적인 나라들의 힘만으로는 건설할수 없다. 세계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하나로 굳게 뭉쳐 떨쳐나서야 최후발악하는 제국주의를 거꾸러뜨리고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을 앞당길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어느 대륙에 있든,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있든 관계없이 모두가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한 국제관계와 질서가 보장되여야 매개 나라들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며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이룩해나가는데 유리하기때문이다. 매개 나라에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주체는 그 나라 인민이지만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주체는 그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반제자주력량이다.

반제자주력량은 제국주의세력에 비할바없는 큰 힘을 가지고있다. 문제는 반제자주력량이 어떻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단결이 모든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것은 진리이다.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은 수많은 나라들이 광범히 참가하는 투쟁으로서 전세계의 발전과 번영은 물론 인류의 운명과 관련되는 투쟁이다. 따라서 반제자주력량이 굳게 단결해야 자주적인 새 세계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은 본질에 있어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들사이의 단결이다. 자주성을 떠난 단결이란 있을수 없다. 단결은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사회적본성에 기초하여야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자기의 위력을 다 발휘할수 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이 강화된다는것은 그만큼 힘이 강해진다는것을 의미한다. 반제자주력량의 힘이 강해지면 질수록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도 빨리 다그쳐질수 있다. 인류의 자주위업은 단결된 반제자주력량의 힘에 의하여 전진하고 승리한다.

반제자주력량이 단결해야 제국주의세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의 최대의 방해자는 제국주의세력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낡고 불공평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며 그러한 질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랭전종식후 미국은 세계의 일극화구상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강권과 전횡을 부리였다. 미국에 의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하여 엄중한 후과들이 산생되였다. 중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무고한 인민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있는것은 바로 미국의 군사적강권, 패권주의정책의 산물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오늘의 현실을 두려워하며 이로부터 어떻게 해서나 력사발전의 방향을 거꾸로 돌려세워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일극화를 실현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에 차단봉을 내리우기 위해 온갖 비렬하고 악랄한 책동을 다 벌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을 짓부시는것은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파괴하기 위해 비렬한 심리모략전을 벌리고있다. 그들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서방식《민주화》바람을 불어넣으려고 발악하는 한편 여러 지역에서 추종국가들을 부추겨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들이 서로 대립되게 만들려고 꾀하고있다. 오늘 세계곳곳에서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 복잡한 사태들이 빚어지고있는 원인은 제국주의자들이 심리모략전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는데 있다.

반제자주력량이 단결하자면 나라들사이의 관계에 쐐기를 치고 분렬을 조장시키는 제국주의의 심리모략전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 반제자주력량이 사분오렬되면 자주성도 견지하기 힘들고 평화도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것을 좋아할 세력은 제국주의자들이다. 모든 반제자주력량은 자주, 평화, 친선에 대한 공통된 지향과 념원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제도와 정견, 사상과 신앙, 민족과 인종의 차이를 초월하여 능히 단결할수 있다.

반제자주력량이 단결하여 투쟁해야 낡고 불공평한 현 국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할수 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의 리익과 권리가 자주성에 기초하여 철저히 보장되게 하는 국제질서가 수립된 세계가 바로 자주적인 새 세계이다.

낡고 불평등한 현 국제질서는 제국주의세력이 세워놓은것이다. 이러한 국제질서는 자주권을 고수하고 사회경제적진보와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려는 발전도상나라들의 념원과 리익을 심히 침해하고있다. 제국주의세력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일부 국제기구들과 협약들, 그 무슨 구상이라는것들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로골적으로 침략하고 략탈하며 이 나라들에 대한 정치적압박과 경제봉쇄를 가하는데 공공연히 악용되고있다.

이러한 불공평한 국제질서를 바로잡자고 해도 반제자주력량이 단결해야 한다.

지금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기 지역특성에 맞는 통화체계를 내오고 경제적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있는것은 낡고 불공평한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최근년간 주목되고있는것은 중국과 인디아 등 여러 나라들이 망라된 《브릭스》가 출현하여 활동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서방주도의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활동이 나날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호상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며 국제문제처리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는것은 단결의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은 매개 나라의 자주권과 리익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원칙에서 호상 협력과 련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우리 공화국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언제나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여왔으며 이 나라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반제자주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돌림으로써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리 경 수

선군으로 다져진 사회주의강국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우간다, 탄자니아, 도이췰란드, 뻬루, 나이제리아에서 기념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와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챰보고종합대학, 주체사상연구소조 탄자니아전국조정위원회, 탄자니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도이췰란드공산당 니데르작센주위원회, 하노버주체사상연구소조, 뻬루에 있는 평양문화쎈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뻬루위원회, 나이제리아 **김정일**주의연구소조의 인사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참가하였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인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위원장 바구마 이쏘케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각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시는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되고 특히 선군정치로 하여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나라의 현실을 찬양하면서 우간다에서도 주체사상을 광범히 연구보급하여 이를 따라배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소조 탄자니아전국조정위원회 위원장 프란씨스 에프. 리모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는 주체혁명위업의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신다.

그이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조선인민이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믿는다.

번영하는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도이췰란드 하노버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얘르그 로렌츠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칭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시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군대를 조국보위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시여 계속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동시에 경제건설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안아오시였다.

도이췰란드, 뻬루에서 진행된 토론회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 ⁂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가 인터네트홈페지《하나의 조선네트워크》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홈페지는 《남조선인민들, 위인칭송열기 고조》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칭송의 마음이 날로 고조되고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을 전하는 글과 사진들이 남조선의 신문, 통신, 방송과 인터네트언론에 수많이 편집된데 대하여 자료적으로 렬거하였다.

홈페지는 또한 남조선의 진보단체들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자료들을 련일 인터네트에 올리고있는 사실들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정력적인 현지지도강행군으로 공화국북반부의 강성대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는데 대해 높이 찬양하고있다.

그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끊임없는 현지지도에 의해 경제와 인민생활분야에서 세계를 경탄시키는 비약의 폭풍이 일어나고있다고 하면서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은 그이의 모습에서 승리를 락관하고있으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낄 날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에 넘쳐있다고 격찬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공화국북반부의 일심단결이 사상 최고의 높이에 이르렀다고 말하고있다.

홈페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치는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통하여 조중관계를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올리시였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우리 인민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의 의도와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찬양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반향을 올렸다.

본사기자

호금도주석 과학기술문제해결에 힘을 넣을데 대해 강조

중국의 호금도주석이 14일 제11차 5개년계획기간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주는 국가중대과학기술전람관을 돌아보면서 과학기술문제해결에 힘을 넣을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제12차 5개년계획기간의 경제 및 사회발전목표와 과제들을 수행하고 발전의 주도권을 틀어쥐자면 과학기술에 의거하고 자주적혁신능력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사명감을 깊이 명심하고 더욱 분발하여 중국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핵심기술과 관건적인 기술분야에서 돌파구를 여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또한 세계과학기술의 최고봉으로 끊임없이 내달려 혁신형국가건설과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과학적발전을 과학기술적으로 힘있게 안받침하여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언급

캄보쟈수상 훈 센이 16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해 농업생산과 옷수출이 많이 늘어나 경제장성에 이바지하였다고 말하였다.

지금 나라의 경제발전전망은 아주 좋다고 하면서 그는 정부가 앞으로 년간 경제장성률을 6~7%로 끌어올릴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그릇된 행위를 단죄

메히꼬국회 상원의원 루이스 알베르또가 10일 자기 나라에로의 무기밀매를 공공연히 조장하는 미국의 그릇된 행위를 단죄하였다.

마약밀매조직들의 무기구입경로를 조사한다는 미국정부관리들이 도리여 메히꼬에로의 대대적인 무기밀매를 허용하고있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진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자기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불법무도한 행위로 락인하였다.

그는 미국의 이와 같은 처사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설을 지지

우루과이외무성이 15일 성명을 발표하여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설을 지지하는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성명은 자기 나라 정부가 앞으로 창설될 팔레스티나국가를 자주독립국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팔레스티나인민의 민족성과 권리를 침해하려는 그 어떤 테로행위도 반대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미군의 공습만행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반테로》의 간판밑에 파키스탄에 대한 공습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16일 미군은 북부와지리스탄지역 상공에 무인기를 들이밀어 미싸일공격을 가함으로써 4명의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였다.

지역의 안전을 수호할데 대해 주장

집단안전조약기구 서기장 니꼴라이 보르쥬쟈가 최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지역의 안전을 수호할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은 끝나지 않고있으며 이 나라에서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조치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성원국들의 안전을 위협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성원국들이 단결하여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에네르기가격 인상

유로를 사용하는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올해 2월에 에네르기가격이 1년전에 비해 13.1% 인상되였다.

16일 유럽동맹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경제 침체, 실업자 증대

▲미재무성은 10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2월에 련방예산적자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억US$ 더 늘어나 225억US$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현 회계년도의 첫 5개월동안에 미국의 예산적자는 총 6413억US$에 이르렀다.

한편 미국에서 지난해 4.4분기에 경상수지적자가 1 133억US$에 달하였다.

16일 미상무성이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영국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문제가 의연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16일 이 나라 중앙통계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기간에 전국적으로 실업자수가 253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전 3개월동안에 비해 2만 7 000명 더 늘어난것으로서 지난 14년동안의 최고기록으로 된다 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성원국들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1월에 실업자수가 총 4 540만명에 달하였다.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중국에서

—중국에서 전민의무식수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1981년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민의무식수활동을 벌릴데 대한 조치를 취한이래 지난해말까지 전국적으로 588억 9 600만그루의 각종 나무를 심었다.

이 기간 연 127억 3 000만명의 각계층 주민들이 의무식수활동에 참가하였다.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에서 올해에 13만여명 농촌주민들의 먹는물문제를 해결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에 따라 먹는물공급시설건설과 우물파기공사들이 진행되고있다.

—중국 신강위구르자치구에서 석탄자원탐사사업을 적극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난 5년동안 자치구적으로 탐사, 확보된 석탄매장량은 총 2 500억t이상에 달하였다.

자치구에서는 탐사사업을 계속 강화하여 새로운 석탄매장지들을 찾아낼것을 계획하고있다.

신강위구르자치구는 전국적으로 석탄매장량이 풍부한 곳의 하나이다.

—중국 귀주성에서 제12차 5개년계획기간 829개의 저수지들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 성의 저수지들은 대다수가 1950년대와 1970년대에 건설된것으로서 위험개소들이 많다고 한다.

—중국 감숙성에서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을 리용한 전력생산에 힘을 넣고있다.

현재 성에는 13개의 풍력발전소가 세워져 가동하고있다.

지난해 이 발전소들에서 총 20억 7 400만kWh의 전기를 생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포도를 수확하고 있는 칠레의 농민

오늘의 세계

국제적반대에 직면한 아프가니스탄전쟁

지난 3일 미국의 UPI통신이 여러 서방나라들에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카나다에서는 응답자의 63%가, 영국에서는 응답자의 60%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리고있는 전쟁에 대해 반대립장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이번 여론조사결과는 미국이 《반테로》의 미명하에 벌리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이 동맹국들에서도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다면 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목소리가 최근 시기 더욱 높아지고있는가.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시기 미국은 《테로분자》들을 숙청한다는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반테로전》을 벌려왔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이렇다할 성과가 없이 더욱 진퇴량난에 빠져들고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아프가니스탄전쟁마당에서 미군과 나토군의 사망자수는 눈덩이마냥 계속 불어나고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700명이상에 달하는 미군주도하의 나토군병사들이 죽음으로써 2001년 아프가니스탄전쟁이 개시된이래 나토군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해》로 기록된것이 그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된다.

사태가 심각하게 번져지자 미국의 《반테로전》에 호응하여 아프가니스탄에 무력을 증파하였던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군철수를 서두르고있다. 남의 나라 땅에서 무의미한 죽음만을 당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이로부터 미국의 동맹국들에서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반대하면서 자국무력을 철수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한층 더 고조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상황이 《호전》되고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성과가 크게 있는것처럼 미화분식하고있다.

미국이 떠드는 이러한 궤변은 나토군무력을 아프가니스탄에 계속 주둔시켜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려는데로부터 출발한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수법은 통하지 않고있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은 국제적인 반전기운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해말 영국의 런던에서는 반전단체의 호소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떨쳐나와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렸다. 이러한 반전운동은 아프가니스탄에 무력을 파견한 나라들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반전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것은 미국의 《반테로전》이 전략적요충지들과 주요자원지대들을 군사적으로 장악, 지배할 목적밑에 감행되고있다는것을 깨닫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반대하는 국제적움직임이 강화되고있는것은 이 나라의 비극적인 현실과도 관련된다. 미국이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전쟁을 개시한이래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는 언제 한번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때가 없으며 이로 하여 민간인사상자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은 저들의 사상자를 줄인다는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인기공격을 비롯한 무차별적인 공습, 지상작전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이로 하여 죄없는 민간인들이 무리죽음을 당하고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테로와 보복이 악순환되고 극심한 사회적혼란과 무질서가 조성되고있다. 아프가니스탄과 린접하고있는 파키스탄민간인들도 《반테로전》의 희생물이 되고있다. 지난 8일에만도 파키스탄의 북부와지리스탄과 남부와지리스탄지역에서 미군의 무인기공격으로 10명의 무고한 파키스탄인들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의 살륙만행은 현지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수백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수도 카불의 중심부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벌리였다. 그들은 《미군기지들을 항구적으로 두는것은 아프가니스탄국민을 영원한 노예로 만드는것이나 다름없다》, 《강점은 살륙과 파괴의 요인이다》라고 씌여진 프랑카드들을 들고 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미국에 죽음을 주라!》라는 구호를 웨쳤다. 이 시위를 조직한 한 성원은 《우리의 목적은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에 의한 민간인살해행위를 규탄하자는것이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 미군이 있는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항구적으로 미군기지를 못박아두려는 미국의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주둔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목소리도 높아가고있다.

지난 8일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 이란내무상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나라에 대한 외국무력의 주둔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그는 외국무력의 주둔이 아프가니스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란외무성 대변인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주둔이 폭력사태를 더욱 조장시키고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여론들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주둔이 이 나라에서의 폭력사태의 재발과 극단주의세력의 부활 그리고 비법적인 마약생산의 증대 등 값비싼 후과들을 초래하고있다는데 대해 한결같이 동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국제사회계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테로》의 미명하에 벌리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시급히 중지하고 이 나라에서 자국무력을 철수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의연히 지속되고있는 전략적모순

지난 2월초 로씨야와 미국사이의 새로운 전략공격무기축감에 관한 조약이 정식 발효되였다. 새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의 발효는 랭전종식후 로미사이에 존재하던 불신과 군사적대립관계를 해소하고 신뢰를 도모하며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산물로서 국제공동체의 공감과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로미쌍방이 호상 신뢰를 보장하고 관계완화를 도모해나갈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국제사회계의 기대와는 달리 전략적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로미사이에 일련의 복잡성이 조성되고있다.

얼마전 미국무장관 힐러리는 미국이 뽈스까에 공군부대를 새로 고정배비하며 미싸일방위체계기지를 건설한다는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나토주재 로씨야상임대표인 로고진은 뽈스까에 미싸일방위체계기지를 건설하려는 미국의 계획은 1997년 로미사이에 채택된 기본조약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 조약에는 미국이 로씨야국경주변에서 군사력강화를 삼가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여있다고 하면서 로미사이에 미싸일방위체계배비와 관련한 회담이 진행되기전에 이러한 계획이 발표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미전에 유럽미싸일방위체계창설을 선포한 미국은 그 수립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려 하고있다. 군사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체계수립의 첫번째와 두번째단계는 로미사이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할 위험성을 조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후에 잠재적으로 로씨야의 대륙간탄도미싸일들을 포착, 요격할수 있는 미싸일방위체계요소들이 유럽에 전개되는 경우 그것은 쌍방사이의 전략적균형과 로씨야의 안전, 리익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있다. 이로부터 로씨야는 미국에 여러 기회에 유럽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삼가할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지난해 뽀르뚜갈의 리스봉에서 있은 로씨야—나토리사회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들에도 배치된다고 한다.

최근 로씨야외무상 라브로브는 한 국제회의에서 새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은 거기에 반영된 평등과 균등, 불가분리의 균등한 안전원칙들을 고려할 때 그것은 국제관계의 군사, 정치적변화에 맞게 합의를 이룩할수 있는 일종의 《훌륭한 기준》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한 방송과의 회견에서 새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이 리행된 후 그에 뒤따르는 모든 합의리행에는 로씨야와 미국뿐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로씨야는 군비경쟁과 무기의 우주배비를 저지시키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뽈스까에 공군부대를 새로 고정배비하며 미싸일방위체계기지를 건설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로씨야의 반발을 자아내고있는것은 당연하다.

로씨야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뽈스까에 미싸일방위체계의 기본요소들과 공군부대를 배치하려는것은 자기 나라의 불안감과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미국의 이 계획이 현실화되는 경우 자기 나라도 자체의 계획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씨야는 나라의 전략적안전과 리익을 위협하는 미국의 군사적움직임에 대처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얼마전 로씨야수상은 어느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로씨야국방공업종합체에서 대대적인 재장비사업이 진행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 로씨야국방공업종합체의 생산장성률은 13%에 이르렀다. 최근 로씨야에서는 군대의 종합적인 재장비를 위한 새로운 국가무장장비계획이 작성되였다. 이 계획은 국방부문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는것으로 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로씨야국방성 제1부상이 발표한 2020년까지의 군현대화의 구체적인 대책을 놓고서도 로씨야가 군사력강화에 큰 힘을 넣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그는 2020년까지 19조Rbl을 투자하여 전략핵부대나 해군비행대 등의 장비현대화를 다그칠것이라고 하면서 빠른 시일안에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싸일 《불라바》를 배비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군사전문가들은 《불라바》를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대항하여 미국과의 핵무력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로씨야의 주패장으로 평하고있다.

지난 3일 로씨야에서 5세대 전투기인 《T—50》의 두번째 시제품의 첫 시험비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이번에 시험비행한 전투기는 임의의 날씨조건에서도 주야로 비행할수 있고 그 활동이 발견될 확률이 적으며 장시간의 초음속비행을 할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있다고 한다. 또한 이 전투기는 새로운 항법체계와 효능이 높은 자동화된 방어체계를 갖추고있다고 한다.

이 전투기의 시험비행이 있은 다음날 로씨야전략로케트군에서 이동식미싸일종합체인 《PC—24》대륙간탄도미싸일로 장비한 첫 미싸일련대가 전투근무에 진입하였다. 전략로케트군 공식대변인이 이따르—따쓰통신에 통보한데 의하면 《PC—24》대륙간탄도미싸일의 취역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를 타파하기 위한 전략로케트군타격집단의 전투력과 로씨야의 핵억제력을 강화할것이라고 한다.

현실은 새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이 발효되였지만 로미사이의 전략적모순이 쌍방의 군사전략적리해관계의 대립으로 하여 쉽사리 해소되기 어렵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신경섭

ㄱ-11054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